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24호 【루계 제23076호】 주체99(2010)년 5월 4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에짚트민족민주당 위원장인 에짚트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까히라

에짚트민족민주당 위원장
에짚트아랍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후쓰니 무바라크각하

나는 당신의 생일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발전과 번영, 중동문제의 공정하고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당신과 귀국정부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과 아울러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일

주체99(2010)년 5월 3일 평 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출판, 인터네트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로씨야 하바롭스까야 크라예바야 찌뽀그라피야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가 지난 4월 11일 인터네트공동홈페지 《조선—백두산》에 게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김정일령도자께서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훌륭한 경희극을 내놓은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혁명적인 연극은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21세기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씨야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관현악단예술인들은 합창과 관현악 《전우여 지금 어데 있는가》, 합창과 무용 《깔린까》, 녀성독창 《푸른 수건》, 합창 《승리의 날》 등 노래들을 공연무대에 올렸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통신 《가제따.루》,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의 인터네트공동홈페지 《조선—백두산》도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라오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건군절에 즈음하여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15군부대 군인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용맹스러운 훈련모습을 보시고 모든 군인들이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제때에 격파분쇄하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킬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군이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전투력을 억척같이 다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또한 조선인민군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586군부대 지휘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건군절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훈으로 빛나는 부대의 자랑찬 행로를 보여주는 승리의 기록들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부대는 가렬한 전쟁의 나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로동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비의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운 력사있는 부대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에서 배출된 수많은 영웅들의 위훈을 일일이 헤아려보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친 이들이야말로 견결한 혁명가, 조선로동당의 참된 밑뿌리였다고 하시면서 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모든 군인들이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추억하는 새 세기의 영웅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전투기술기재들을 돌아보신 후 부대의 작전지휘실과 군사연구실들에 들리시여 훈련정형을 료해하시고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군인회관을 비롯한 문화교양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업진행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상문화교양시설들을 군인들의 특성에 맞게 잘 꾸리고 정치사업을 참신하고 심도있게 진행하고있으며 모든 군인들이 충분한 문화정서생활을 하고있는데 대해 기뻐하시면서 사상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건군절경축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로정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백절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이 백두의 혁명정신이 도도히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예술인들이 선군시대 나팔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혁명적인 예술활동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군대와 인민을 선군혁명총진군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안고 희망찬 미래에로 신심드높이 앞으로!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총공세를 힘있게 고무추동

각지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일군들은 모든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여 경제건설의 중요전투장들에서 선전선동공세를 집중적으로 들이대며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대고조격전장마다에 총공세에로 부르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위대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선전선동공세를 화선식으로!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이런 활동방식으로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선전선동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부문별, 대상별에 따르는 정치사업자료를 만든 다음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려나가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50일전투와 100일전투에서 이룩한 부문별성과들을 수록한 록화편집물과 4대선행부문과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긍정자료를 반영한 방송편집물을 만들어 일군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는 도당일군경제선동대, 도인민위원회일군경제선동대, 대학생청년기동예술선동대, 도예술선전대를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순천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중요공장, 기업소들과 경공업공장들에 파견하여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

황해남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에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데 대한 강연제강을 만들어가지고 강연강사들이 도안의 협동농장들과 작업반들을 순회하면서 예술선동을 배합하여 강연선전활동을 특색있게 벌려나가게 하였다.

도당위원회는 청단군 남촌리에서 공동사설과 공동구호관철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방송야회를 특색있게 조직하고 그것을 시,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도방송위원회 기자, 방송원들에게 보여주어 모든 시, 군당조직들에서 방송야회와 혁신자축하모임을 조직하도록 하였다.

사리원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토대를 공고히 하면서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알곡생산에서 앞장서나가고있는 단위들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와 긍정적모범을 적극 내세우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강연선전, 직관선전, 방송선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근기있게 벌려나가게 하였다.

시당위원회는 곳곳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로정도를 직관물로 게시하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와 헌신에 대한 감동적인 자료를 시에 깃든 령도업적과 결부시켜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장군님의 현지지도강행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오늘의 대고조에서 모두가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사리원기초식품공장 생산공정들에 콤퓨터에 의한 자동조종체계와 생산지휘체계를 받아들이였으며 사리원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는 식료품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원료를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문천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경공업부문에 쌓아올리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강연, 해설담화를 집중적으로 조직하여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과 석전소금밭의 저류지를 확장하고 소금밭결정지에 수지타일깔기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강도, 남포시, 회령시, 리원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도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화선식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감으로써 일터마다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이 나래치게 하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모든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킬수 있게, 화선식으로 실효성있게 벌리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펴고 선전선동공세를 드세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최일호

조국강토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물질적재부를 늘이고 조국강토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림으로써 후대들에게 만년대계의 창조물들과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줄수 있게 합니다.》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도로건설과 관리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도에서는 신의주—남신의주를 비롯한 여러곳을 련결하는 도로들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훌륭히 건설하였으며 동림군과 곽산군, 정주시를 비롯한 여러 시, 군들에서는 소재지도로를 포장하였다. 그리하여 도안의 모든 도로들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 면모가 일신됨으로써 주변일대의 풍치가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였으며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더 잘 도모하고 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로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업을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일뿐아니라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여러가지 형식의 선전선동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국토부문 일군들은 도안의 모든 도로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그 어느때보다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도에서는 도안의 중요도로들을 자체의 힘으로 새롭게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는 사업에 품을 넣었다. 그리고 로력과 기계화수단들을 집중하여 도로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도로건설에 떨쳐나선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국심을 높이 발휘하여 건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안의 시, 군들에서 소재지도로를 포장하기 위한 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힘있게 벌어졌다.

곽산군에서는 군소재지기본도로의 폭을 넓히고 교통상 편리하게 간선도로들을 정리하는 공사를 앞세우면서 전구간을 콩크리트로 포장하였다. 그리고 도로와 걸음길사이에 장식블로크를 세워 도로의 면모를 새롭게 하면서 문화성도 보장하였다.

동림군에서는 도로포장을 질적으로 끝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도로의 문화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도로구간에 가로등을 세우고 주변의 공공건물들과 문화후생시설들에 불장식을 하였다.

정주시, 구성시, 선천, 녕변, 운산군들에서도 도로포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도안의 시, 군들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토사도로의 기술개건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사업도 정상적으로 내밀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함경남도에서

함경남도에서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키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강산을 푸르게 할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한결같이 떨쳐나 수만정보의 산림을 새로 조성하고 거리와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리였으며 도로와 강하천들도 번듯하게 정리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과 시, 군들에서는 이번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킬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군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해당 일군들은 시, 군들을 맡고나가 현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나무심기에로 광범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홍원군에서는 도로주변의 산들에 많은 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우고 군중을 동원하여 수백정보의 경제림과 땔나무림을 조성하였다.

리원군에서는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려 나무심기를 위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군적인 력량을 집중하여 군안의 6개 지구에 이깔나무, 세잎소나무를 심어 340여정보의 산림을 조성하였다.

부전군과 장진군, 허천군을 비롯한 산골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산림조성사업에 힘을 넣어 경제림과 혼성림조성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도로건설과 관리, 강하천정리사업도 잘하였다.

함흥시 회상구역과 리원군, 금야군에서는 도로건설과 관리사업에 힘을 넣어 가로수심기와 정리를 잘하고 도로의 평탄성을 보장하여 그 면모를 일신시키였다. 북청군에서는 여러개의 다리를 새로 건설하였으며 고원군과 덕성군, 요덕군에서는 강하천정리사업에 힘을 넣어 장석공사를 질적으로 하였다.

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맛이 나게 더 잘 꾸리기 위한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시, 군들에서는 사회주의경쟁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함흥시의 성천강, 동흥산, 회상구역을 비롯한 여러 구역들과 단천시, 정평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는 공공건물과 살림집들의 벽체미장을 다시 하고 외장재를 새로 칠하였으며 울타리들을 조선기와장식울타리로 개조하고 꽃밭들을 조성하여 거리와 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였다.

특파기자 박동석

대고조전투장의 새 소식

례성강6호발전소 발전설비생산 결속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례성강6호발전소의 발전설비생산을 빛나게 결속하였다.

태양절을 계기로 례성강6호발전소건설장에서 첫 발전설비의 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소식에 접한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앙양된 그 기세로 마지막발전설비의 부속품가공과 조립에서 혁신을 일으켜 얼마전 발전기회전자조립을 끝내였다.

이것은 기업소에서 례성강6호발전소의 발전설비생산을 완전히 결속짓는 자랑찬 성과로서 황해남도의 지방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능력이 큰 중소형발전소의 조업을 가까운 시일안에 보장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야 합니다.》

기업소의 일군들은 태양절을 맞는 4월에 례성강6호발전소의 발전설비생산을 결속할 목표를 내걸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였다.

특히 타빈과 고정자 등 마지막발전설비의 중요부분품생산이 이미전에 결속된 조건에 맞게 해당 직장들에서 회전자부속품가공과 조립일정을 빈틈없이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발전설비1가공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적극 떨쳐나섰다.

이곳 직장일군들은 희천발전소 발전설비부속품가공을 비롯한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제가 겹친 속에서도 기대맞물림을 잘하고 해당 기대공들의 책임성을 높여나갔다. 복철, 자극압축단판가공을 맡은 직장의 기대공들은 가공품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가공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가공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다.

뜻깊은 4월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전투는 발전설비조립직장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직장일군들과 조립공들은 권선조립을 비롯하여 회전자의 총조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예견성있게 해나가면서 가공품들이 넘어오는족족 조립일정을 드팀없이 지켜나갔다. 제품의 질보장에 힘을 넣은 총조립작업반원들은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높은 기술기능을 발휘하여 회전자총조립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부속품, 자재보장을 맡은 여러 직장,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뜻깊은 4월을 자랑찬 실적으로 빛내일 한마음안고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일으켜 마지막발전설비의 모든 부분품생산을 결속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례성강6호발전소조업을 하루빨리 보장하는데 기여할 일념을 안은 기업소일군들은 발전설비생산에 그치지 않고 주인다운 립장에서 현지에서의 설비조립전투도 성심성의껏 도와주고있다.

기업소에서는 황해남도와 건설지휘부의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건설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올해 초봄부터 설비조립을 맡아할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현지에 내려보냈다. 건설장에 도착한 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발전소건설을 함께 책임진다는 주인다운 자각밑에 설비조립작업에서 높은 책임성과 기술기능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첫 발전설비의 시운전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들의 기세는 마지막발전설비의 부분품들이 도착하면서 더욱 앙양되고있다.

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첫 발전설비의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보장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그곳 돌격대원들과 함께 마지막발전설비의 조립전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위대한 장군님을 일터에 모셨던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비날론생산을 더욱 다그치고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붓대를 혁명투쟁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조선인민혁명군 대내기관지 《서광》 창간기념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아래 혁명적출판물인 조선인민혁명군 대내기관지 《서광》이 창간된 때로부터 어느덧 73년세월이 흘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져주신 만년터전우에 멀지 않아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게 될 력사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끓어번지는 사상감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백두밀림속에서 창조된 혁명적출판물의 고귀한 전통이 격동의 선군시대와 더불어 훌륭히 계승발전되고있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비약의 활력을 세차게 뿜어주는 선군혁명의 위력한 무기인 우리 당 출판보도물!

위대한 선군시대에 투쟁과 전진의 기치로 되고있는 우리 당 출판보도물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천만군민은 총대와 함께 붓대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피어린 항일의 불길속에서 혁명적출판물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붓대중시사상은 항일혁명투쟁에 그 시원을 두고있습니다.》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총이나 대포에 못지 않게 혁명적출판물의 위력을 중시하시고 《새날》과 《볼쉐위크》, 《농우》를 발간하시여 혁명적붓대포의 위력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회고록에 쓰신것처럼 출판물은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의 하나이며 이 무기의 사정거리는 무한하다.

수백만대중을 향해 동일한 사상과 투쟁구호를 일시에 신속히 선전하며 대중을 결속시키고 그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시키는데서 출판물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 선전선동수단은 없다.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 적과 싸워이길수 있는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예리하고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를 가져야만 승리할수 있다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확고한 신념이였다.

총대와 함께 붓대는 혁명투쟁의 강위력한 무기!

이 고귀한 진리를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6(1937)년 5월초 조선인민혁명군 대내기관지 《서광》을 창간하시였다.

《서광》!

얼마나 의미깊으면서도 지향적인 이름인가.

여기에는 하루빨리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고 해방된 조국에서 살려는 우리 민족의 절절한 숙망과 그 서광을 기어이 앞당겨 맞이하려는 조선혁명가들의 의지가 힘차게 고동치고있었다.

《서광》은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힘있게 이끌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광범한 대중이 혁명적으로 단련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신문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알기 쉽게 해설한 글들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빛나는 전투성과들과 영웅적투쟁모습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실리였다. 또한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와 일제의 죄행, 국내 인민들의 반일투쟁 등에 대하여 많이 취급하였으며 대원들이 창작한 문예작품들도 실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정서교양에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몸소 집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도 《서광》에 발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광》의 내용과 편집형식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전투와 행군이 계속되는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손수 신문에 실릴 글들을 쓰시여 인민혁명군대원들과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더욱 높여주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간고한 혈전의 불길속에서 변변한 등사기재도 없이 출판물을 발간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혁명적출판물을 혁명승리의 위력한 무기로 내세우시는 우리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출판물발간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백두밀림속에 꾸려진 사상의 《병기창》, 《붓대포》진지들에서 뿜어져나오는 위력한 글포성은 항일대전의 지원포가 되고 홰불이 되여 광범한 대중의 심장마다에 투쟁의 불길을 활활 지펴올렸으며 마침내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사변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할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여 해방후 출판보도기관들을 창설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의 출판보도물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혁명적출판물들은 붓대의 자랑찬 력사를 긍지높이 수놓으며 혁명과 건설의 사상정신적무기로 그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우리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우리 시대 혁명적출판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그 위대한 전통을 마련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길이 칭송할것이다.

어버이수령님에 의하여 마련된 우리 당 출판물의 전통은 오늘 희세의 언론대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련면히 계승발전되고있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찬란히 빛나고있다.

나는 혁명투쟁에서 언제나 붓대를 중시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붓대는 총대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출판보도사업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공전선이다!

일찍부터 사람들의 사상정신력발동에서 붓대가 노는 커다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중대한 력사적시기마다 출판보도활동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안겨주시고 우리의 출판보도물이 명실공히 당의 사상적무기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붓대를 틀어쥐시고 백승을 떨치시는 희세의 선군령장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출판보도물은 시대를 선도하며 **김일성**민족의 불굴의 사상정신력을 힘있게 분출시키는 선군혁명의 무기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에서 문필가들에게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달수 있는 글감들도 안겨주시고 수많은 기사, 편집물들도 하나하나 지도하여주시며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당의 의도대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영웅들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좋은 글이 나왔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기자, 언론인들을 높이 내세워주신 자애로운 스승의 손길, 시대를 격동시키는 훌륭한 글을 집필할수 있도록 비행기까지 띄워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붓대와 마이크를 틀어잡은 심장마다에 불변의 신념을 심어주시며 지혜와 열정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각별한 은정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정녕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은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총대와 함께 붓대를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틀어쥐시고 그것을 정치에 능숙하게 활용하시는 탁월한 정치원로이시다.

지난 2월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이 이룩되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국기자, 언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기자, 언론인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진군나팔수이다》**를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서한에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출판보도전에서 정치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릴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현시기 우리 당 출판보도물앞에 나서는 과업과 그 실현방도를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서한은 주체언론의 위력을 비상히 높여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대고조대의 언론대강이며 기자, 언론인들이 오늘의 총진군의 앞장에서 진군나팔수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수 있게 추동하는 위대한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여 우리의 사상진지는 금성철벽이며 그 위력은 나날이 백배해지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혁명적출판보도물의 영광스러운 전통이 억세게 살아 고동치는 내 나라, 내 조국땅에 천만군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힘있게 부르는 선군《붓대포》의 포성은 더욱 장쾌하게 울릴것이며 그 힘찬 메아리와 더불어 강성대국승리의 그날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강 철 남

한순간에 찾은 묘책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걸린 문제들을 대번에 포착하시고 그 해결방도를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령도풍모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으로서의 천품을 타고난 위대한분이시라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분수식관수문제가 일정에 올랐던 때였다.

그 시기 분수식관수도입과 관련하여 화제에 오른것은 발관수에 필요한 관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발관수용관은 주철관을 쓰는것이 상례로 되여있었다.

일군들은 여러날에 걸쳐 론의를 거듭하였지만 신통한 방안을 찾지 못하였다.

주철관을 생산하는데 많은 강재가 필요했기때문이였다. 당시 중요대상건설이 집중적으로 벌어지고있던 조건에서 주철관생산에 필요한 강재를 별도로 보장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이 사실이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되였다.

실태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주철관문제로 마음쓰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달리는 차안에서도 줄곧 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시였다.

그이를 모신 차가 평양시교외의 어느 한 곳을 지날 때였다.

차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시고 무엇인가를 눈여겨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갑자기 차를 멈추게 하시였다.

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도로옆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일군들은 영문을 알수 없어 그이의 뒤를 따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로옆의 한 전주대앞에 다가서시여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우아래를 훑어보시였다.

일군들의 시선은 일시에 그 전주대쪽으로 쏠리였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전주대에는 별다른것이 없었다. 어데서나 볼수 있는 그런 콩크리트전주대는 그 주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문을 몰라 의아해하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전주대를 두드려보시였다.

이윽고 전주대를 훑어보시며 그 높이를 가늠하시던 그이의 안색은 밝아지는것이였다. 주철관대신 그 전주대처럼 콩크리트관을 만들어 리용하면 발관수용관문제를 해결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굳히신듯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날 평양에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쌓인 피로도 푸실사이없이 그 가능성을 알아보시였다. 그 과정에 그이께서는 세멘트로 관을 만들면 주철관을 대신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시였다.

이렇게 되여 발관수에 필요한 관생산문제가 한순간에 풀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관생산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어디 가나 보게 되는 전주대, 더우기 그 전주대가 있는 지역은 그들이 하루에도 여러번 오가던 곳이였다.

하지만 자기들이 늘 범상히 보아오던 콩크리트전주대들을 우리 수령님께서만은 무심히 보지 않으시였으니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심정이 얼마나 격동되였으랴.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지나가는 전주대를 보시면서 걸린 문제를 풀수 있는 묘책을 한순간에 찾으신 그이의 비범한 령도풍모를 되새기며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

본사기자 김 동 철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의 생활력과 정당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콤퓨터과학대학에서— 리 진 명 찍음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겨주시며

필승의 신심과 락관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과 함께 조선의 명산, 금강산의 주봉인 비로봉에 오르시였을 때의 일이다.

금강산의 일만경치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전망대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세월 착취계급의 독점물로 되였던 금강산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인민의 유원지로 훌륭히 전변되였다고 하시면서 산좋고 물맑은 우리 나라에는 가는 곳마다 만사람이 부러워하는 명승지들이 많다고, 찬란한 문화와 유구한 력사를 가진 아름다운 사회주의조국에서 참된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조국의 력사와 문화, 아름다움에 대하여 잘 알아야 애국주의정신이 발양된다고, 명승지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더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얼마후 온 누리를 붉은빛으로 물들이며 장쾌한 해돋이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평선우로 해가 솟는것이 장관이라고 하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 장쾌한 광경을 부감하시였다.

저 멀리 수평선우로 솟아오르는 거대한 태양은 마치도 바야흐로 밝아올 강성대국승리의 날을 예고하듯 더더욱 붉게 붉게 타오르고있었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치는 시선으로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쌓인 피로도 다 잊으신듯 점도록 해돋이를 부감하시는 그이의 모습은 강성대국의 승리를 불러오시는 절세위인의 거룩하신 모습이였다.

그이의 숭엄한 모습을 경건히 우러르는 일군들의 귀전에는 머지않아 터져오를 강성대국승리의 만세함성이 쟁쟁히 울려오는것만 같았다.

영원한 승리의 기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ㅌ.ㄷ》결성 80돐을 맞으며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ㅌ.ㄷ》의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데 대한 력사적인 담화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담화에서 《ㅌ.ㄷ》결성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ㅌ.ㄷ》는 우리 당의 뿌리이고 선군의 시원이며 단결의 전형이고 우리 혁명의 승리의 기치이라고 말씀하시였다.

《ㅌ.ㄷ》의 지위에 관한 고전적정식화였다.

《ㅌ.ㄷ》의 전통이 있어 우리 당이 로숙하고 세련된 백전백승의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우리 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되고 령도자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이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전진할수 있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ㅌ.ㄷ》결성 8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고보니 우리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ㅌ.ㄷ》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은 걸어온 길도 멀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도 멀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난관에 부닥친다 하여도 《ㅌ.ㄷ》의 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에 하신 력사적인 담화는 오늘도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힘차게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 혁명적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가도록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몸소 새겨주신 철의 진리

주체95(2006)년 12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사상의 위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철의 신념과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주의교양을 진공적으로 벌릴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혁명은 신념으로 하며 신념이 없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 혁명을 할수 없다. 특히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선군시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우월성과 승리의 필연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불패성을 깊이 인식시켜 사람들이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사회주의이며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는 사회주의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그 정당성과 우월성, 생활력으로 하여 필승불패이며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고 법칙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선군사상, 선군혁명령도가 있고 전당, 전군, 전민의 일심단결과 무적의 혁명무력이 있는 한 우리의 사회주의는 언제나 승승장구할것이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빛나게 완성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본사기자 렴 철 호

철산군 리화리당위원회에서 모든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독보와 해설담화, 연구발표모임, 문답식학습경연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학습을 정상화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로작의 진수를 깊이 연구학습하고 들끓는 현실에 나가 여러 계기와 실정에 맞게 농장원들속에 적극 해설선전하도록 하고있다.

로작학습을 실속있게

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군은 작업의 쉴참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에 대한 해설모임을 진행하였다. 그는 이 로작은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명시한 불멸의 대강이라는데 대하여 감명깊게 말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우리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로농통신원 정 윤 조

혁명적군중로선관철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

우리 혁명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단결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치고있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광명한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귀중한 재부이다.

오늘 우리의 일심단결이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뭉친 불패의 통일단결로 끊임없이 강화되고있는것은 옳바른 군중로선을 제시하고 그 구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당은 마땅히 혁명적군중로선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전행정에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일심단결의 공고성과 위력은 중요하게 군중과의 사업에 달려있다. 군중과의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사업이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 시기부터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을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정치적문제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어왔다. 언제나 민심을 틀어쥐고 그에 맞게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비상히 강화되고 우리 사회는 전체 인민이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게 되였다. 우리는 일심단결을 혁명의 만년재보로, 백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계속 강화해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군중과의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으며 우리 당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낄 웅대한 구상을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있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는 근본비결은 첫째도 둘째도 군중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는데 있다.

광범한 군중은 강성대국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며 군중과의 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잘해나갈 때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경공업과 농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지름길도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고 혁명적대고조의 승리를 위한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하는 비결도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는데 있다.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인덕정치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는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가장 공고한 단결은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실현된다. 인민대중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는 정치가만이 군중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울수 있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인민적정치가의 최고귀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덕정치를 받들고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자면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에는 인민대중을 선생으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살게 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열화같은 사랑이 담겨져있는것이 바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혁명적군중로선을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 때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인덕정치의 고마움을 더욱 뜨겁게 느끼게 되고 그에 보답할 한마음으로 언제나 심장을 불태우게 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우리 당의 이 구호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군중로선관철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지침이다. 오늘 우리 일군들가운데는 인민들로부터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들이 수없이 많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의 요구대로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대중에게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갈 때 우리 당의 인덕정치의 생활력은 남김없이 과시되게 될것이며 우리 조국은 영원히 일심단결의 강국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릴것이다.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또한 일심단결의 정신력으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강성대국의 새날을 안아오는 힘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대중의 정신력이며 그것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길은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 있다.

일심단결의 정신은 선군조선의 위대한 정신력의 최고정화이며 우리의 대고조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게 하는 기본추동력이다.

우리 당은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이 가로놓이고 중대한 혁명임무가 나설 때마다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의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여왔다. 천만대중이 자기 령도자와 사상과 뜻도 하나, 감정과 정서도 하나가 된 일심단결의 정신력만 있으면 령토가 크지 않고 인구가 많지 않아도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떨칠수 있다는것이 우리의 강국건설력사가 가르치는 철리이다.

우리는 오늘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도 **김일성**민족의 제일가는 정신력인 일심단결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과의 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품을 들여 잘해나가야 한다. 혁명적대고조의 승리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이러한 신념을 인민들속에 더욱 깊이 심어주기 위한 방도가 바로 당의 군중로선 관철에 있다.

오늘 혁명적대고조의 승리를 힘있게 추동하는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정신력은 당의 군중로선이 철저히 구현되는 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과 조국건설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과학자, 기술자들, 생산자대중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한마음한뜻이 되여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고있는것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을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는 적들의 반동공세를 짓부시기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치렬한 대결전을 벌리면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 인민의 강성대국건설을 가로막아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지만 우리에게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불패의 일심단결이 있기에 끄떡하지 않는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상적전일체이며 이러한 단결은 군중로선관철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고있는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우리 당의 군중로선은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 신념을 폐부로 절감하게 한다. 군중로선을 틀어쥐고 그 구현을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을수록 전체 인민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을 깊이 체득하게 되며 이 과정에 사람들은 누구나 당적원칙, 계급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가는 불굴의 투사로 자라나게 된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비할바없이 고결하다. 사회주의를 자기의 생명으로, 생활로 여기고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우리 인민에게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책동도, 심리모략전도 절대로 통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하나의 사회주의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에서 전체 인민들은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와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고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원칙, 사회주의본태를 견결히 고수해나가고있다.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사회주의의 견결한 수호자로 억세게 자라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양양한 전도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청년들과의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음으로써 모든 청년들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용사들로, 제국주의반동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무자비하게 짓부시는 전위투사들로 키웠다. 이것은 우리 당의 군중로선 관철에서 이룩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승리이다.

군중로선은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이 전진할수록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일심단결의 로선, 백전백승의 로선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천만대중의 정신력,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여야 할것이다.

김 홍 근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을 높이 떨친 남흥의 본때

가스화대상공사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이 자랑찬 현실로 꽃펴나 남흥땅에 또 하나의 격동적인 사변이 펼쳐졌다. 지난 4월 29일,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공정이 성과적으로 조업하여 비료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열리였다.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비료가 폭포치듯 쏟아져내리는 벅찬 광경앞에서 만사람들이 터져오르는 만세의 환호로 눈시울을 적시였다.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이였던가! 온 나라의 대경사로 력사에 아로새겨진 주체의 비날론폭포와 쇠물폭포에 이어 뜻깊은 4월에 터져오른 주체의 비료폭포소식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고있다.

벨트콘베아흐름선을 타고 춤추듯 흘러가는 우리의 무진장한 원료, 덩지큰 압축기들과 비료생산공정들에서 울려나오는 고르로운 동음속에 시간이 다르게 높아가는 하얀 비료산을 보고 또 보느라면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해 무섭게 돌진해나가는 내 조국의 우렁찬 발구름소리가 가슴을 쿵쿵 울려준다.

주체의 비날론폭포와 쇠물폭포로 이 땅을 들었다놓았던 우리의 로동계급이 인민생활대고조의 해에 또다시 안아온 이 경이적인 사변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놓으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이 어떻게 현실로 하나하나 실현되고있는가를 다시한번 세계앞에 가슴후련하게 보여주었다.

오늘의 장엄한 대고조진군길에 빛나는 삶의 자욱을 아로새긴 남흥의 용맹한 돌격투사들, 그들은 여러 단위의 건설자들과 힘을 합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여 1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큰 규모의 공장건설과 맞먹는 방대한 대상공사를 훌륭히 완공하고 조업을 선포하였다.

우리는 청천강반에 또 하나의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운 남흥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당의 령도따라 강성대국에로 돌진해나가는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을 소리높이 전한다.

충정은 남흥의 제일생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에서 높이 발양하여야 할 김일성민족의 제일가는 정신력은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받들어 한몸바쳐나서는 일심단결의 정신력입니다.》

남흥의 로동계급은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 자랑스러운 력사를 창조해왔다. 생산공정을 자체의 힘으로 훌륭하게 일떠세운 기업소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자력갱생을 잘하는 공장이라는 값높은 칭호를 주신 그때로부터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남흥의 로동계급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에 숨죽은 기업소의 생산설비를 언제든지 가동할수 있게 지켜내고 갱질관을 비롯한 중요설비,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였으며 현대적인 탄산소다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완성한 이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해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기업소는 생산활성화와 기술혁명,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의 본보기단위로 온 나라의 앞장에서 소리치며 달려왔다.

바로 이런 남흥의 로동계급이기에 이번 가스화대상공사에 참가하는 이들의 신념과 배짱은 남다른것이였다.

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여러 단위의 건설자들이 현지에 달려와 공사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은것은 2년전 5월이였다. 통이 크게 펼친 공사는 퍼그나 시일이 흘렀으나 시원스럽게 진척되지 못하고있었다. 공사를 담당한 단위들이 여러 공사를 동시에 맡은데다가 보장조건이 어려웠던것이다.

아직은 기초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공사장을 보는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의 마음에는 어두운 그늘이 비껴있었다. 비록 기업소가 직접 맡은 공사는 아니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펼쳐주신 건설공사이기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니였다. 공사가 완공되면 직접 맡아 운영할 주인이 다름아닌 기업소로동계급이였던것이다.

—우리 기업소가 현행생산도 하면서 《제1시공주》가 되여 공사의 큰 몫을 맡아할수는 없겠는가.

그것은 실로 아름찬 일이였다. 보통 큰 공장건설의 3~4배의 규모와 맞먹는 방대한 공사과제를 현행생산을 내밀면서 해제낀다는것은 선뜻 결심하기 어려운것이였다.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이 이 문제를 놓고 모대기던 어느날 밤이였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공사장을 돌아보던 기업소책임일군의 귀전에는 압축기기초굴착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속에서 오가는 열기띤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장군님께선 이밤도 전선길을 달리시면서 완공의 소식을 얼마나 기다리실가?》

《난 그걸 생각하면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아. 그래서 교대를 마치고 여기에 달려와 한바탕 땀을 흘려야 오금이 편안하다니까. …》

《우리만이 아니야. 저길 보라구.》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승벽내기로 흙을 퍼올리고있었다. 알고보니 그들은 낮교대를 마친 암모니아직장의 오랜 기능공들이였다. 책임일군의 가슴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그 누가 조직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밤 우리의 성실한 로동계급은 말없이 하루일을 끝마치고 저렇게 공사장으로 달려나온것이 아닌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네일, 내일 가림이 없이 주인이 되여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 사람들, 그들의 가슴속에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애국충정의 분화구를 터친다면 무엇인들 못해내랴!…)

가스화대상공사의 《제1시공주》로 련합기업소가 되였다는 소식에 접한 남흥땅은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였다. 련합기업소의 현장지휘부로, 직장의 사무실로는 매일같이 자기를 돌격대원으로 등록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비였다.

《이렇게 떼여놓는 법이 있습니까. 직장장동지!》

《벌써 몇번 말해야 알겠소. 현장을 지키는 일은 쉬운줄 아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참가하고야말겠습니다. 먼 후날에 대고조자서전을 떳떳이 쓰기 위해서 말입니다.》

…

이런 충정을 지닌 로동계급의 앞길을 누가 막아나설수 있으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결사전에 나선 남흥의 용맹한 돌격투사들은 이렇게 당과 수령, 조국을 먼저 생각할줄 아는 사람들이였다.

우리 당은 무엇을 밑천으로 대고조를 결심하였는가. 누구를 믿고 오늘의 혁명적대고조를 호소하였는가.

앞으로 해야 할 공사의 방대함과 어려움보다도 우리 장군님의 원대한 뜻을 꽃피우는 실천투쟁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남다른 자각, 자기의 령도자께 바치는 가장 깨끗한 충정으로 살며 투쟁할줄 아는 이런 충직한 로동계급을 굳게 믿고 강성대국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친것이다.

결사관철은 남흥의 투쟁방식

지금은 볼수도 들을수도 없다. 숲을 이룬 웅장한 산업구조물들을 떠이고 선 대들보와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함성을 심장으로 터치며 공격전의 전렬에 자기를 세워달라던 그 열띤 목소리들을,

허나 우리는 총공격전의 폭풍이 휘몰아친 어제날의 전구를 거닐고 또 거닐며 수많은 산업구조물들과 설비들, 수만m의 배관조립에 바쳐진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을 가슴뜨겁게 안아보며 우렁찬 생산의 동음속에 그날의 불같은 웨침을 심장으로 듣는다.

붉은기바다가 펼쳐진 전투장에서는 여러 대상의 산업구조물들에 대한 건축공사가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치렬한 전투는 대형압축기설치를 위한 기초콩크리트치기공사장에서 진행되였다.

수십만㎥의 기초굴착과 지반교체작업을 끝낸 남흥로동계급이 기초콩크리트치기에 착수한것은 그해 7월 중순경이였다. 정작 공사에 들어서니 예상밖으로 힘겨웠다. 때없이 쏟아지는 줄대같은 소낙비, 엎친데 덮친 격으로 솟구쳐나오는 지하수, 지지는듯 한 뙤약볕,

횡포한 자연은 이들이 지닌 어벌찬 담력과 배짱을 가늠해보려는듯 기승을 부리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삽시에 애써 파놓은 기초구뎅이에는 물이 차올랐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혼합기와 배전반의 밑굽을 적시려드는 위험한 순간이였다. 그 시각 누군가의 《비키라!》는 고함소리가 공사장을 쩌렁쩌렁 울리였다.

로당원인 전기직장의 최규익동무였다. 비장한 각오를 안고 배전반을 건져내기 위해 물에 뛰여들려는 때에 누군가가 막아나섰지만 그는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배전반을 안아내오고야말았다. 또다시 혼합기의 동음이 기세차게 울리고 그날 콩크리트기초치기실적은 두배로 부쩍 뛰여올랐다. 후날 그런 정황에서 어떻게 서슴없이 몸을 내댈 용단을 내렸는가고 묻는 사람들에게 로당원은 스스럼없이 말하였다.

《당원의 의무를 다하고싶었소.》

그의 소박한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였다. 건설자들은 격동된 심정으로 당원이라는 소중한 이름을 심장깊이 새기였다.

당원!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면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기어이 해내는것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조선로동당원인것이다.

어떻게 하면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을 한시라도 더 빨리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하여 그이께 기쁨을 드리겠는가. 일군들과 로동자들모두가 오직 이 하나의 지향으로 심장을 불태웠기에 온 공사장에는 결사관철의 정신이 세차게 나래쳤다.

전문건설기업소가 아닌 이곳 사람들이 기술적요구대로 압축기장의 골조조립공사를 원만히 해낼수 있겠는가?

이것은 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던 시기 해당 부문의 기술자들이 우려하던 문제였다. 대형압축기장골조조립에는 90여가지가 넘는 각종 규격의 수천t의 철근이 들어가야 하였다. 그 조립만이라도 전문건설기업소에 맡기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하지만 남흥로동계급의 결심에는 드팀이 없었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결사관철하려는것이 이들의 확고한 의지였다. 토론끝에 련합기업소에서는 젊은 기능공들을 기본으로 여러 규격과 종류의 철근을 조립하는 방법과 순서를 배워주고 그들을 위주로 공사를 벌리기로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1년은 실히 걸린다던 대형압축기장골조조립공사를 40일만에 끝내였고 온 한해를 이런 불같은 투쟁속에 맞고보냈다.

지지는듯 한 뙤약볕속에서 백개가 넘는 콩크리트기둥보와 많은 부재판이 만들어졌고 계절을 앞당겨 덩지큰 가스발생로건축물과 수많은 산업구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자력갱생! 이것은 남흥로동계급의 투쟁기질에서 결사관철의 정신과 함께 기본핵을 이룬다.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결사관철의 투쟁속에 공사장의 면모는 날이 갈수록 몰라보게 달라졌다. 대형기둥들이 키돋움하며 솟고 건물벽체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올라갔다.

어느 작업장에서나 건설자재를 부르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높은 건설속도에 보장조건이 미처 따라서지 못하는 정황이 조성되곤 하였기때문이였다. 그때마다 이들이 높이 추켜든것은 자력갱생의 기치였다. 련합기업소에는 지난 시기 보수작업에 필요한 소재를 생산보장하던 자그마한 소재직장이 있었다. 그런데 이 소재직장능력으로는 요구되는 강재를 보장할수 없었다.

로동자, 기술자들속에서 기발한 착상이 나왔다. 합리적인 가열로개조안과 압연능력을 배로 높일수 있는 설비개조안이였다. 그에 따라 가열로와 압연기, 전동기개조전투가 벌어졌다. 설계도면을 마주하고 밤을 새우기를 그 며칠, 전동기와 송풍기개조를 위해 당일군도 기술일군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밝힌 밤은 얼마인지 모른다.

그들은 불같이 사색하고 불같이 실천하며 끝끝내 성공하였다. 공사기간 자체로 생산보장한 환강은 무려 천수백t에 달하였으니 이것은 단순한 수자적개념만으로 볼수 없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였다.

가스발생로건축공사장에서는 사람들이 오늘도 자력갱생의 위력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추억하는 잊지 못할 사연이 전해지고있다. 당장 겨울철이 다가오던 때에 통나무보장이 늦어져 층막공사를 할수 없게 되였다. 이것은 전반적인 공사일정을 보장하는데 후과를 미칠수 있는 초미의 문제였다.

물론 그때 자재가 보장되기를 앉아 기다려 공사를 벌린다고 해도 누가 탓할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남흥로동계급의 심장은 오직 하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을 실천으로 받들려는 결사관철의 의지와 신념으로 불탔다.

매달기식철판휘틀에 의한 층막치기공법은 늘 현장에서 로동자들을 떠밀어주던 련합기업소당책임일군이 착상의 종자를 심어주고 열분해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대담하게 받아들인것이였다. 건설부문 전문가들속에서도 감탄을 자아낸 이 공법은 수천㎥의 통나무가 없이도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공사장 어디서나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자력갱생》, 이 네글자를 뚜렷이 새겨넣은 붉은 기발들이 세차게 나붓기였다.

벽체공사에 필요한 수십만매의 블로크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어느날 보수부문의 한 녀성로동자가 블로크 한장을 보자기에 싸들고 현장지휘부로 찾아와 질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분석결과는 나무랄데 없었다. 그는 기쁜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젠 풀렸습니다.》

남흥땅 어디 가나 흔히 만나볼수 있는 녀성로동자, 비록 수수한 작업복을 입은 평범한 녀성이였지만 그 작은 가슴에 얼마나 큰것이 자리잡고있는가.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는 공사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려고 합리적인 양생방법을 생각한것이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불가능을 모르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심어주시였기에 이렇듯 남흥로동계급모두는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들로 자라났다.

이런 강자들의 힘이 합쳐지는 속에 그처럼 풀기 어렵다던 건물축조용블로크와 무진장하게 요구되는 골재와 강재문제도 훌륭히 해결되여 설비기초와 벽체축조공사기일이 기적같이 앞당겨지고 수많은 화학설비들이 든든히 뿌리를 내리였다.

지금은 틀지게 들어앉은 산업구조물들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밑에는 뜨거운 심장을 지닌 남흥로동계급의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 맥맥히 흐르고 그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억척같이 뿌리내려져있다.

청춘의 랑만은 남흥의 특질

지난해 5월, 남흥가스화대상공사장은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였다. 이날 기업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남흥로동계급이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자력으로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고 하시면서 후방공급사업과 로동계급의 새 문화창조에서 본보기를 마련한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남흥의 로동계급이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주체비료의 새 력사를 펼치는 방대한 이번 공사과제를 거의 자체의 힘으로 해낼수 있은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장군님께서 아시는 기업소, 자력갱생의 본보기단위의 영예를 빛내이자면 기업소의 모든 면모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고 생활을 혁명적으로, 락천적으로 해야 한다는것이 일군들의 확고한 의지였다. 하기에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가스화대상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어느날 체육관건설문제를 다시 상정시키였다.

그때 협의회의 분위기는 자못 심중하였다. 놀라운듯 한 사람들의 표정, 서로 마주보는 눈길들…

(한명의 로력과 한대의 운수기재조차 따져가며 써야 하는 때에 또 다른 일판을 벌린단 말인가? 력량을 분산시키다가는 공사일정을 보장 못하게 된다.)

말은 없었으나 사람들은 이런 내심을 안고 문제토의에 참가하고있었다.

《체육관건설은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공사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는 힘도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책임일군의 이야기는 일시 동요하던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주었다. 현대적인 체육관건설은 또다시 본격적으로 진척되였다. 얼마후 나무장식으로 된 특색있는 벽체와 쪽무이바닥을 깔고 배구대, 롱구대가 보기 좋게 세워진 현대적인 체육관이 청춘원과 어깨나란히 우뚝 솟아났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일정계획이 바쁘다고 해도 열기를 띤 단위별체육경기가 꼭꼭 벌어졌다. 이런 경기때면 소문난 미장공, 용접공, 조립공들이 유명한 배구선수, 롱구선수가 되고 심판원이 되였다.

공사장은 그대로 하나의 《무대》이기도 하였다. 전투현장에서는 짤막한 쉴참에도 흥겨운 오락회가 벌어지고 기동예술선동대의 취주악소리와 혼합기, 기중기들의 동음이 하나로 어울려 《대고조교향곡》으로 장엄하게 울려퍼졌다.

경기장에서 공이 날아오르고 혁명적인 노래로 공사장이 들썩일 때면 창조의 기상과 용맹은 더욱 백배해졌고 강성대국을 마중해가는 건설자들의 푸른 꿈과 랑만도 함께 날아올랐다. 하루밤자고 일어나면 산업구조물들이 쑥쑥 키돋움하며 일떠섰고 침전지와 배수계통완공의 흐뭇한 소식이 온 건설장을 들었다놓았다.

그렇다. 남흥로동계급은 이처럼 방대한 가스화대상건설을 벌려놓고도 생활과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전진의 보폭을 넓혀나간 신념의 강자들이였다.

언제인가 로동자들의 이름이 작업반별로 나란히 적혀있고 기술학습정형에 대한 시험성적들이 기록되여있는 류다른 《시험성적표》가 공사장에 나붙었다.

그 사연인즉 이러하였다. 남흥가스화대상공사가 하루하루 완공단계에 들어설수록 현대적인 생산공정의 당당한 주인이 되려는 남흥로동계급의 열망은 더욱 커만 갔다. 발생로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설비를 다룰수 있는 현대적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너도나도 떨쳐나섰다. 그들의 기술학습열풍은 자진하여 만든 《시험성적표》가 다 말해주었다. 발생로직장의 종업원들은 자칭 《밀림속의 군정학습》이라고 부르던 그때를 오늘도 잊지 못해 즐겁게 추억하군 한다.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당의 구호를 기발처럼 날리며 가스화대상공사의 첫 자욱부터 주체의 신념으로 애국의 피를 끓이며 온넋을 깡그리 바쳐온 이곳 기술자들과 수많은 과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지나온 투쟁의 나날들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이 나날에 현대화에서 나서는 중요한 기술적문제들을 우리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제힘으로 훌륭히 풀어나간 기술자, 과학자들의 위훈은 오늘도 만사람을 끝없이 감동시키고있다. 그처럼 방대한 량의 설비조립을 그처럼 짧은 기간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성하고 종합시운전에서 단번치기성공으로 통장훈을 부른 가슴후련한 이 기적적인 성과에는 수백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 창의고안으로 최첨단기술을 생산에 도입한 그들의 숨은 공로가 고스란히 빛나고있는것이다.

미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그것은 자기가 창조하는 하나의 건설물, 생산하는 제품 하나에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흠잡을데 없이 높은 수준에서 완공된 현대적인 생산공정들,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봄내, 여름내 꽃속에, 열매속에 묻혀있는 드넓은 기업소구내, 한번 오면 또 오고싶게 특색있게 건설된 청춘원과 체육관, 과학기술보급실 등 문화봉사기지들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만큼 대단히 훌륭하다.

기업소의 곳곳에 있는 남새온실들의 연 건평만도 무려 1만㎡에 달한다. 누구나 볼수록 감탄을 자아내는 믿음직한 집짐승먹이생산기지, 전문공장을 방불케 하는 기초식품생산기지, 수천수백마리의 오리와 돼지, 소 등 집짐승들이 욱실거리는 축산기지는 보는 사람, 듣는 사람모두에게 남흥로동계급의 무서운 힘이 과연 어디에서 샘솟은것인가를 현실로 느낄수 있게 하는 생동한 실례이다. 남흥의 로동계급이 지닌 혁명적락관과 승리에 대한 확신은 이렇게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울수 있은 불굴의 힘의 원천이였다.

조국청사에 빛나는 위훈을 세운 남흥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있는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정으로 심장을 끓이며 높은 실력과 실적으로 대고조시대를 빛내여나가는것, 바로 이것이 대고조진군에 나선 우리모두가 새겨안아야 할 고귀한 투쟁진리이다.

본사기자 명흥숙
본사기자 전성삼

감자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자

북부고산지대 감자산지들에서 감자심기가 시작되였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먹는 문제해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면 감자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와닥닥 끝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침입니다.》

감자심기에서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기상기후조건이 불리한 북부고산지대들에서 감자심기를 제철에 하여야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낼수 있다. 일군들은 봄철날씨가 례년에 없이 찬 조건에 맞게 날자별, 포전별감자심기일정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로력조직과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잘하여 그날계획은 그날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자종자싹틔우기와 밭갈이를 확고히 앞세워 감자심기일정계획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감자심기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이 깃든 뜨락또르와 감자파종기를 비롯한 농기계수리정비를 잘하고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갖추어 만가동시킴으로써 감자를 적기에 심어야 한다.

감자심기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랑짓기를 잘하고 거름과 흙보산비료를 듬뿍 내며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면서 기술적요구대로 심어야 한다.

뜻깊은 올해 감자심기전투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달려있다.

일군들이 서야 할 자리는 들끓는 감자포전이다. 일군들은 자신들이 지닌 책임감을 자각하고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하여야 한다.

농사의 주인은 농업근로자들이다. 북부고산지대 농업근로자들은 감자농사혁명의 주인이라는 긍지를 안고 밭갈이와 거름내기, 감자심기를 책임적으로 주인답게 해나가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감자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이신작칙과 양보

원산시 현동남새전문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원산시 현동남새전문협동농장은 농사를 잘 짓기로 소문이 난 단위이다. 해마다 농업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비결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곳에 농사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일군들이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농장의 기둥들이 끌끌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여기에 지난 2월에 진행된 전국농업대회를 전후하여 있었던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이 어머니당의 일군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인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자면 진정으로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녀야 합니다.》

전국농업대회에 참가하였던 참가자들이 돌아온 다음이였다.

농장원들속에서 기사장이 대회에 갔다오더니 달라졌다는 말이 돌았다.

그도그럴것이 60살을 훨씬 넘긴 나이에 어디서 새 힘이 솟는지 온 농장벌을 메주밟듯 뛰여다녔던것이다.

논벼앞그루감자농사경험을 배우러 과학자들을 찾아간다, 두둑짓는기계를 만든다고 법석을 하며 올해 앞그루감자농사에서 기어이 장훈을 부르자고 벼르는 기사장의 태도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농장원들은 모두 기뻐하였다. 농장의 논상태를 제 속내처럼 잘 알뿐아니라 농사일에 막힘이 없는 기사장이 마음먹고 달라붙었으니 앞그루감자농사는 먹어놓은셈이였던것이다.

기사장에 대한 소문이 관리위원장 최옥녀동무에게까지 들려왔다.

어느날 기사장과 마주앉은 관리위원장이 어디서 그런 정력이 나오는가고 물었다. 그날 기사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우리 기술일군들을 내세워주려고 당조직에서 얼마나 남모르는 마음을 쓰는지. 도리를 모르면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였다. 상급에서는 농장초급당일군을 추천하였었다. 농장이 일 잘하는 단위로 계속 소문을 내고있는데는 그의 공로가 컸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초급당비서가 완강하게 제기하였다. 응당 기사장이 가야 한다고, 그는 오랜 농사지도일군이고 올해 앞그루감자농사도 그가 기둥이 되여야 모범이 창조될수 있다고…

결국 당일군의 양보가 기사장의 마음을 울렸던것이다.

관리위원장에게서 기사장의 이야기를 들은 농장초급당비서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좋은것을 앞에 놓고 자식보다 저를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를 보았습니까. 그러니 당일군이 양보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할가.》

양보는 미덕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당일군은 그러한 미덕도 의무로 간주할줄 알아야 한다. 어머니당일군이 아닌가.

평범한 사람들의 양보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미덕으로 남지만 당일군의 양보는 만사람의 가슴속에 당조직의 믿음, 어머니당의 기대로 새겨진다. 믿음과 기대에는 보답이 따르기마련이다.

힘든 일엔 앞장서고 좋은 일엔 양보하는 이런 당일군이 있어 일 잘하는 단위의 기둥감들이 대를 이어 훌륭하게 자라날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림현숙

전쟁로병들을 적극 내세워

숙천청년과수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전쟁로병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 한편 그들을 내세워 새 세대 청년들을 1950년대의 투쟁정신으로 교양하고있다.

얼마전 농장에서 중요한 전투과업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전쟁로병들을 출연시켜 1950년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이 맥박치는 위훈담을 농장원들속에 실감있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이날 로병들의 투쟁이야기를 들으며 농장원들은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오늘의 대고조전투에서도 기어이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조상구

친혈육의 정을 안고

동림군상업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군대를 물심량면으로 원호하고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도와주는 미풍을 발휘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관리소에서는 축산기지들을 훌륭히 꾸려놓고 매해 뜻깊은 기념일들과 건군절을 맞으며 많은 원호물자들을 마련하여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인민군대원호뿐아니라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는 사업에도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오랜 기간 군안의 영예군인들의 친딸, 친동생이 되여 그들의 생활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는 리춘명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동림군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지니고

흥남비료련합기업소 화학기계분공장 물리실험실 기사 박사 김병영동무는 50여년간을 한직종에서 당에 대한 순결한 량심을 지니고 변함없이 일해온 공로있는 기술자이다.

그는 기업소에 배낭을 풀어놓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화학공업부문에서 나서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으며 수십건의 과학기술론문들과 도서들을 집필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실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얼마전에는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에서 제기되는 여러건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공장의 생산정상화에 적극 기여하였다. 그 나날 그는 당의 높은 신임과 믿음에 의해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과 함께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국지식인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 참가하여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았다.

믿음에는 보답이 따라야 하고 사랑에는 충정이 따라야 한다는것을 자기 한생의 실천속에서 고귀한 진리로 새겨안은 그는 현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칠순이 훨씬 넘은 오늘에도 청춘의 활기와 정열에 넘쳐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튼튼한 벼모를 키워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룡천군 양서농장에서—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

제25차 중앙과학기술축전장을 돌아보고

최첨단돌파의 드높은 기상과 열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기본요구는 짧은 력사적기간에 첨단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것입니다.》

최첨단돌파의 나래를 활짝 펴고 강성대국을 마중해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국각지 수많은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한 제25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이번 축전을 통하여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 땅에 발붙이고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하는 담대한 기상과 자신만만한 배짱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놓을데 대한 당의 웅대한 뜻을 최첨단과학기술성과로 받들어 나가려는 굳은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과학자들과 교원학자들은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많은 과학연구성과들을 축전에 내놓았다.

수학연구소의 《2.16과학기술상》수상자이며 박사인 리승규동무가 제안한 콤퓨터에 의한 진동진단체계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계진동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가동중에 있는 기계설비들의 진동을 측정하고 가동상태를 진단할뿐아니라 진동원인을 찾아 현장에서 균형잡이를 할수 있게 하였다. 이들은 수풍발전소와 원산청년발전소 등 여러 발전소들과 중요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수십개 단위들에 과학연구성과를 도입하여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게 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수자식자체려자장치를 출품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기술은 발전설비운영의 믿음성을 보장하고 발전기를 병렬운전할 때 무효전력을 원활하게 분배하는것을 비롯하여 발전기들과 동기전동기들에 도입할수 있어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수, 박사 김은섭, 교원 리태섭동무와 석탄과학분원의 함상호동무를 비롯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 망라된 과학자들은 무연탄완경사중박층채굴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더 많은 석탄을 캐낼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채굴조건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채탄법을 선택하며 인공지능에 의한 채굴공정관리 등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넣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박대성동무는 갱도주위암반을 과학적으로 분류한데 기초하여 합리적인 동발류형을 선택하고 갱도표준설계를 신속히 제공할수 있게 하여 동발보수주기를 종전보다 훨씬 늘이고 갱도유지비용을 줄일수 있게 하였다.

이번 축전에는 또한 우리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사회주의자립경제의 기둥인 금속공업부문에 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주체철생산방법을 확립하고 철도운수부문에 새형의 전기기관차를 개발하여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연구성과가 전시되였다.

이밖에 여러 부문에서 거둔 연구성과도 주목을 끌었다.

희천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조선인민내무군의 어느 한 군인이 연구도입한 언제의 균렬을 막을수 있는 대담한 시공방법, 락원건설기계설계연구소에서 산소분리기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우리 식으로 푼것 등의 과학연구성과는 온 나라에 나래치는 최첨단돌파의 드높은 기상과 비상한 애국적열정이 낳은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중앙과학기술축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CNC기술을 정복한 기세로 모든것의 패권을 쥐려는 우리 인민의 자랑찬 투쟁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오철훈

불타는 탐구, 고귀한 결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문의 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나서며 무슨 일이나 과학기술적으로 파악하고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는것을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이번 축전에는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과학연구사업과 자기 단위의 기술개건에서 이룩한 훌륭한 성과를 안고 참가한 부자, 부부, 형제들도 적지 않았다.

실험생물학연구소 연구사인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성근동무와 실장인 박사 김명철동무는 부자간이다.

탐구의 길을 대를 이어가며 함께 걷고있는 이들은 이번에 항균, 항비루스활성이 현존약재들보다 몇배나 높고 광폭적이고 지속적일뿐아니라 부작용이 없고 약제내성이 없는 나노은—나노요드분산액과 한번 처리하여 수확량을 열매남새는 20~40%, 콩은 15~30%, 감자는 15%, 강냉이는 10% 높이고 나무의 사름률을 80%이상 보장하며 생육을 촉진하는 식물영양강화제를 내놓아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의주식료공장 지배인 남기욱동무와 신의주경공업대학 남혁동무도 부자간이다.

지방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실리가 나게 공장의 기술개건을 잘하여 전국에 널리 알려진 아버지 남기욱동무는 값비싼 자재를 쓰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더 좋게 당액을 정제할수 있는 새로운 나노빛촉매에 의한 정제기술성과를 가지고 축전에 참가하였다. 아들인 남혁동무는 격막식회전원판발효탕크에서 장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열을 석탄이나 전기를 쓰지 않고 술생산공정에서 나오는 랭각수를 리용하여 보장함으로써 많은 연료와 전력을 절약하는데 이바지한 성과를 안고 아버지와 함께 참가하였다.

대동군 학수협동농장 농장원들인 강광일, 로순영동무들은 부부간이다.

한평생 포전길을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우는 길에 당의 품속에서 키워온 지혜와 재능을 바치자고 농촌으로 자원진출한 이들부부는 이번에 적은 량의 수분과 공기를 보충하여 뜨락또르에서 종전에 소비하던 연유의 20% 이상을 절약하면서도 제작도입하기 쉬운 기술과 휘발유를 쓰는 원동기의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고 디젤유도 쓸수 있게 하면서도 많은 연유를 절약할수 있는 실리있는 기술을 발표하였다.

함흥화학공업대학 화학공학연구소 김명섭, 한경란부부도 양어업과 축산업발전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을수 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안고 이번 축전에 참가하였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속에서 이악한 연구사부부로 소문이 자자한 이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 불타는 열정을 기울여 축산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들이 내놓은 성과자료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돋보이는 부부》, 《훌륭한 연구사부부》라고 하면서 존경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 류체기계연구집단의 전광욱, 전광훈동무들은 형제간이다. 전광욱동무가 제안한 제약봉식1축스크류봉탄성형기는 인민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광범히 쓰이는 카바이드를 생산하는데서 큰 몫을 차지할뿐아니라 그 질도 담보한다고 한다.

또한 전광훈동무의 비금속봉삽입식미끄럼베아링은 기름을 윤활제로 쓰던 종전의 방식보다 물을 윤활제로 사용하는 우월성을 가지고있고 이전보다 수명도 더 늘일수 있다고 한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누구나 쉽게 걸을수 없는 탐구의 길을 대를 이어가며, 서로 도와가며 힘차게 걸어가는 부자, 부부, 형제들은 이번 축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켰다.

본사기자 려명희

비상한 창조정신이 안아온 열매

축하의 인사와 결의,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며 오가는 문답, 수첩을 펼치고 무엇인가 속필하는 사람들, 확신에 넘쳐 자기의 제안을 조리있게 설명하는 개발자들로 축전장은 흥성이였다.

《우리 공장에서도 이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잘 도와주길 바랍니다.》

《착상이 기발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흥분된 마음안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의 하나인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기술자, 공장, 기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을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정봉남동무는 콤퓨터화상처리에 의한 마디잡개검사체계를 확립하였는데 고치실모음기구멍의 직경과 진원도 등에 대한 검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여 명주실의 질을 훨씬 끌어올릴수 있게 하였다.

폐설물을 재생리용하여 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는 신의주신발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돋보였다. 공장에서는 합성가죽재단과정에 나오는 자투리를 사출신과 운동신갑피로, 신발천재단자투리를 판솜으로 재생하여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고있었다. 결국 지난 시기 쓸모없이 버리던 폐설물들이 이들의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속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귀중한 원료로 된셈이다.

우리가 연구성과의 주인공들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원산구두공장의 기사장이 다가오며 공장의 자랑을 펴놓았다. 공장에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맵시있고 가벼운 신발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창의 재질과 형타를 개조하여 구두의 경량화를 실현하고 신발의 품종수를 부쩍 늘였다는것이였다. 참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각기 안고있는 자랑은 끝이 없을상싶었다.

그 성과들속에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의 불타는 창조적열정과 피타는 노력이 깃들어 있었다.

적은 로력과 전기를 가지고 생산성을 두배나 높일수 있게 회전식양말열처리설비를 창안제작한 강계편직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 유연창대직기에 새로운 씨실가위를 도입하여 많은 원사를 절약하고 설비리용률을 제고한 평양방직공장 리명옥동무, 직접접착법으로 승강기고무손잡이를 재생하여 국가에 큰 리익을 준 수지가공연구소 실장 윤혁철동무…

자기 단위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머지않아 펼쳐지게 될 내 조국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인기를 모은 새기술교류안내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우리 경제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번 축전에서 새기술교류안내실은 류달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언제나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수 있게 하는 청송향과 21세기의 식량으로 전망하고있는 스피룰리나를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은을 나타내고있는 수십건의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전시된 새기술교류안내실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의견을 나누었다.

《축전장에 들어오면 누구나 먼저 찾는 새기술교류안내실입니다.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사이에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교류를 실현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여기가 제일 흥성입니다.》

농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은 어느것이나 인민생활향상과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인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은 발걸음을 떼지 못해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현시기 과학기술발전의 핵심기초기술인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분야의 연구성과들과 중요부문 기술공학, 기초과학부문들에서 이룩된 연구성과들도 자랑할만 하였다.

우리는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의 반영을 들어보았다. 참가자들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놓고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눌수 있어 좋다고 하였고 참관자들은 짧은 시간에 수많은 과학기술적내용과 새 지식을 알수 있어 좋다고 하였다.

몇달동안 여러곳을 다니면서 배워야 할 실용성있는 과학기술자료들을 짧은 시간동안에 한장소에서 기술해설서와 현물, 구체적인 설명을 통하여 아주 헐하게 배우게 되는 새기술교류안내실,

우리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돌파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같은 열정을 느끼였다.

김경철

인상을 남긴 외장재전시회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축전장에서 우리의 눈길을 특별히 끈것은 외장재전시회장이였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김성일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실현하는데서 외장재는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 축전에는 외장재전시분과를 따로 내왔는데 참가자들의 열의도 높고 참관자들의 관심도 대단히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장재전시회장을 돌아보며 출품된 제품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있었다.

심사에 참가한 함흥분원 외장재연구중심의 박사 최성도동무는 20여개 단위에서 수십가지 종류의 외장재를 내놓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소수성고회석외장재를 소개하였다.

함흥분원 공정학동무가 내놓은 이 외장재는 수명이 종전보다 길고 비에 잘 젖지 않는 무기외장재인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있었다.

값비싼 아크릴수지를 쓰지 않고 우리 원료에 기초하여 만든 초산비닐계외장재인 변성초산비닐수성외장재와 개성지방의 풍부한 원료에 기초하여 만든 여러가지 아름다운 색갈의 도석—수지복합외장재에 대한 평가도 좋다고 박사는 말하였다.

전시대에는 여러 단위들에서 자기 지방의 원료에 기초하여 자체로 생산한 외장재들도 전시되여있었다.

참관자들속에는 전시된 외장재를 자기 단위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일군도 있었고 자기 지방의 원료에 기초한 질좋은 외장재를 개발하고 다음번 축전에 꼭 참가할 결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에게는 여기에 출품된 성과들만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도 일터와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질좋은 외장재를 얼마든지 만들어 리용할수 있다는 확신이 굳어졌다.

본사기자

농업생산에 이바지할 한마음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먹는 문제를 푸는것입니다.》

이번 축전에는 나라의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들도 많이 나왔다.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의 하나인 농업전선의 승리를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할 일념을 안고 사색과 탐구의 열정을 바쳐온 각지의 많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들속에는 지난 시기 우량한 논벼품종을 연구도입하여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만경대구역 칠골남새전문농장 백근수동무도 있었다.

그는 이번 축전에 박막을 쓰지 않고 비료를 적게 요구하면서도 수확고가 높고 생육기일이 짧아 두벌농사에 아주 적합한 벼품종을 육성한 훌륭한 성과를 안고 참가하였다. 이 성과는 알곡증산을 위하여 떨쳐나선 농업부문의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여 논벼 정보당 수확고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한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기사장 조룡남동무와 농사조건이 불리한 동해안지대에서도 논두벌농사로 정보당 알곡소출을 높인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기사장 정명철동무의 제안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 연구사 리성일동무가 내놓은 종합논토양관리기계 《미곡—1호》에 대한 평가도 좋았다.

봄철에 마른 논에 대한 땅다루기에서 한번의 공정으로 갈이와 써레, 수평고루기를 할수 있는 이 기계는 많은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2~3배로 늘이고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훨씬 높이며 모내기전의 땅다루기에서 뜨락또르의 리용대수를 절반으로 감소시킬수 있다고 한다.

닭알이나 오리알, 게사니알을 비롯한 모든 가금알들을 깨울수 있으면서도 제작원가가 매우 적은 새형의 다기능인공알깨우기설비를 설계제작한 성과를 내놓은 신의주닭공장 지배인 주명동무를 비롯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현실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풀어 축전장을 찾은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축전에는 1대잡종벼생산체계의 확립, 나노항균복합재료에 의한 가금알의 무균화, 논벼용미생물비료, 다기능벼모내는기계, 무공해남새의 위생기준과 재배기술, 새로운 유채품종육성과 앞그루재배기술과 같은 최근시기 농업부문에서 이룩된 첨단과학기술성과들도 전시되였으며 그 반영도 대단하였다.

축전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신하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제12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 과학토론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3일 제12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참가자들은 나라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그들은 주체적의학과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도꾜도일군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배창렬 도꾜도본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청년동맹 도꾜도일군대표단이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으니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진다.

고향집방문을 통하여 위대한 대원수님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끝없는 흠모심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총련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준비해나가겠다.

대표단은 또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파키스탄준비위원회대표단 귀국

신드주의회 의장인 니싸르 아흐메드 후로 준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파키스탄준비위원회대표단이 3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전영진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과 아리프 마흐무드 주조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5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빠벨 오브쌴니꼬브단장 겸 수석지휘자가 인솔하는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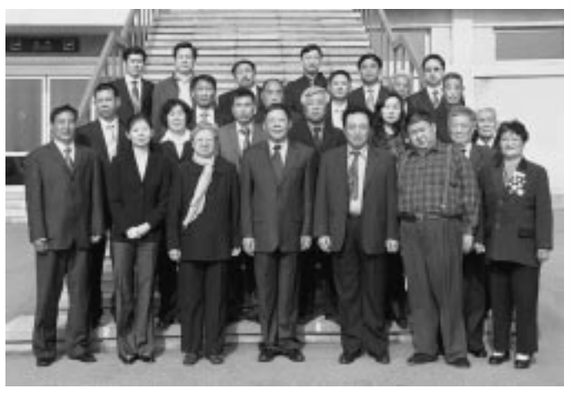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손님들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평양수예연구소 등을 참관하였으며 해방탑에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렬사가족대표단 도착

【평양 5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국방부 외사판공실 부주임인 관우비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가족대표단이 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군관들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림시대리대사, 대사관 국방무관이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제9차 전국로동자체육경기대회 페막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120돐을 맞으며 4월 27일에 개막된 제9차 전국로동자체육경기대회가 페막되였다.

각 도에서 선발된 300여명의 남, 녀선수들이 참가한 경기대회는 1, 2조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경기참가자들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로동의 여가에 련마해온 체육기술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잘 보여주었다.

페막식이 3일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각 도선수들이 페막식에 참가하였다.

종합 1등의 영예를 지닌 철도성과 평안남도를 비롯하여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표창장, 메달들이 수여되였다.

김병팔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페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이번 경기대회를 통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과시한데 대하여 언급하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일터마다에서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데 기여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뜨거운 정성으로

신천군 지남리진료소에서 작업도중 뜻밖의 일로 사경에 처하였던 한 처녀를 소생시켰다.

얼마전 진료소로는 혼수상태에 빠진 한 처녀가 실려오게 되였다. 강심, 해열대책들이 세워지고 많은 시간에 걸쳐 환자의 몸으로는 귀한 약들이 흘러들어갔다. 소장을 비롯한 담당의사와 간호원들이 교대를 해가며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면서 증상에 따르는 치료방법을 끊임없이 적용하여 끝내 환자를 소생시켰다.

진료소의료일군들 누구나 뜨거운 혈육의 정을 안고 끼니때마다 건강회복에 좋은 음식들을 마련하였으며 보약을 구해가지고 환자를 찾았다.

이곳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정성에 의하여 사경에 처했던 처녀는 불과 며칠만에 건강을 회복할수 있게 되였다.

로농통신원 리광춘

근로인민의 세상인 공화국을 한없이 동경하며

세상에 나라가 많고 근로자들이 많아도 우리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처럼 그렇듯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존엄높은 삶을 누리는 행복한 근로자들은 없다.

선군조선의 근로자된 영광과 긍지, 정녕 그것은 어떻게 마련된것이며 어떻게 꽃펴난것이던가.

뜨거운 심장으로 쇠물을 다루는 용해공들을 만나보아도 좋고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석탄을 캐내는 탄부들과 과학자, 연구사들, 드넓은 협동벌의 농업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좋다. 그들의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는 한결같이 이 땅우에 근로하는 인민의 세상, 창조와 건설의 활무대를 펼쳐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라는 격정의 웨침이다.

자본의 지배와 착취에 시달리는 남녘인민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며 행복하게 일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부러워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민적정치를 열렬히 찬양하고있다.

어느 한 식료품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한 로동자는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이북의 로동자들과는 달리 근로대중이 착취와 략탈의 대상으로 되고 초보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있는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이북사회는 이남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북이야말로 근로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활동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이다. 이북에 이런 훌륭한 민중중심의 제도를 마련하여주신 분은 김일성주석님이시고 이 제도를 더욱 빛내여가시는분은 김정일령도자님이시다. 하루빨리 로동자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겨살고싶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말을 듣고있던 한 동료는 《옳은 말이다. 이북의 로동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모른다고 한다. 찍하면 해고되고 일자리를 찾아 몇달씩 헤매야 하는 우리들과는 하늘땅차이이다. 어디 그뿐인가. 이남에서 로동3권은 빈말로 되고있지만 북의 로동자들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있으니 이얼마나 복된 생활인가. 자주적인 삶을 누리고있는 이북의 로동자들이 정말 부럽다.》라고 진심을 터놓았다.

서울의 한 로동자는 어느 한 잡지에 투고한 글 《해빛과 사랑에 대한 생각》에서 근로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인민적정치에 매혹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차겁고 어두운 이 땅에 살고있는 이남민중을 포근히 안아줄 그 사랑, 그 해빛은 과연 어디에 있을가. 그곳은 이북이다. 남녘겨레의 인생의 봄은 이북에서 오고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참으로 민중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펴나가고계신다. 그분께서는 모든것을 민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고 민중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한다. 김정일장군님께서 펴시는 정치야말로 근로인민들에게 영원한 봄을 주고 그늘없이 따사로운 해빛을 주는 위대한 사랑의 정치이다.》

그의 이 글속에 근로인민을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적극 내세워주시고 그들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령도자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우러러 경모하는 남녘겨레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우리 공화국은 진정 모든것이 근로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그들에게 모든 혜택이 차례지게 하는 진정한 인민의 세상이다.

하기에 남조선로동자들은 《이북에서는 국가적, 사회적 시책으로 로동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준다. 이북사회에 해고라는 말자체도 없는것은 물론이다. 이북에서는 땀흘려 일하는 우리같은 로동자들이 이남에서 말하는 〈국회의원〉이 되여 나라의 정사에 참여한다고 하니 이것이 별세상이 아닌가.》, 《이북사회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로동자중시사회, 로동자복지의 무릉도원이다.》라고 하며 동경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는것이다.

언제인가 북남로동자통일행사에 참가했던 울산의 한 로동자는 동료들에게 《북의 로동자들은 한결같이 밝은 모습이였고 자기들의 로동생활에 대한 긍지에 넘쳐있었다. 물질적부의 창조자도, 그 향유자도 다름아닌 자기자신들이기에 창조적인 로동생활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비상하다. 로동자를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아끼고 보살피시며 온갖 사랑을 베푸시는 김정일장군님은 정말 민중의 령도자이시다.》라고 격정을 터놓았다.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 근로대중이 주인으로 되여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자본의 착취와 억압하에 시달리고있는 남조선의 근로인민들은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현대자동차의 한 로동자는 《내가 어느 한 책자를 보니 거기에는 해방후 김일성주석님께서 로동자들의 건강이 념려되시여 로동재해가 극심했던 성진제강소의 원철로를 폭파하게 하신 사실이 수록되여있었다. 돈이 모든것을 좌우하는 이 세상에선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울산의 한 청년로동자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장들을 자주 찾으시며 로동자들이 일을 잘한다고 치하해주신다. 그리고 로동자들의 합숙과 가정들에도 들리시여 그들이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극진히 돌보신다고 한다. 이 세상에 김정일장군님처럼 로동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정치가는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자기 신념을 토로하였다.

어느 한 제강주식회사의 로동자는 《김정일령도자님의 정치를 인덕정치라고 하는 참뜻을 잘 알았다. 환자들을 살리려고 큰 배가 항로를 바꾸고 비행기가 날아간다는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로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수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일령도자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무슨말로 표현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감격을 터뜨렸다.

이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근로인민을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의 정치에 매혹되여 그 위대한 품을 못 견디게 그리는 남녘겨레의 진정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다.

그렇듯 간절한 념원과 동경의 마음을 안고살기에 남녘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행복하게 살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김정일령도자님의 애국애족의 뜻을 받들어 근로대중이 주인된 세상을 안아오자.》

이것이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며 조국통일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굳센 결의이다.

본사기자 라설하

대결광신자들의 단말마적발악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대결을 고취하는 반통일책동에 갈수록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괴뢰국방부 장관직속 자문기구인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북은 주적》이라는 개념을 《국방백서》에 다시 포함시킬 방안을 모의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론의의 흐름은 북을 다시 주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했는데 실지 그렇게 될 경우 래년에 발간되는 2010년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이 정식 쪼아박히게 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보수패당은 그 무슨 《인권위원회》안에 《북인권팀》이라는것을 새로 내온데 이어 술한 《예산》을 쏟아부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내외에 적극 여론화하려고 꾀하고있다. 한편 괴뢰들은 지난 4월 28일 서울에서 《자유시민련대》, 《뉴라이트전국련합》을 비롯한 악질보수단체들과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그 무슨 《대회》라는것을 열고 《자유》니, 《인권》이니 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헐뜯는 《인권》모략소동을 벌리였다.

남조선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광대극이 한두번만 벌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동시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진적은 없었다. 사태는 괴뢰들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악랄하게 가로막으면서 동족대결을 극도로 격화시키기 위해 미친듯이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보수패당이 시대착오적인 《주적》론을 다시금 들고나오고있는것은 그 명백한 증거이다.

《주적》론으로 말하면 피를 나눈 동족을 화해와 단합의 대상이 아니라 무력으로 해쳐야 할 말그대로 《주되는 적》으로 보는 반민족적인 대결전쟁론이다. 6.15통일시대에 동족과의 대결과 전쟁을 고취하는 이런 반민족적인 론리가 용납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그런것으로 하여 《주적》론은 시대와 민심의 버림을 받고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혔던것이다. 이것을 보수패당이 다시 들고나오면서 《국방백서》에 명문화하려 하는것은 그들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슨 사태를 빚어내려 하고있는가를 명확히 시사해주고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대결이고 전쟁이다. 《주적》개념부활소동을 통해 괴뢰들은 동족과의 화해와 협력을 조금도 바라지 않으며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나아가서 무력에 의거하여 북침야망을 실현할것만을 꾀하고있다는것을 스스로 립증해보였다.

남조선집권세력이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도 가장 극단적인 대결망동이다. 우리 공화국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거들며 동족을 터무니없이 헐뜯는것이 북남관계에 미치는 파국적영향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더우기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그에 감히 먹칠을 하려 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의 집중적표현으로서 절대로 묵과될수 없다.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악질적으로 《인권》망발을 계속 줴쳐대며 《북인권팀》이라는것을 꾸며내고 반공화국광대극을 련일 펼치는 등으로 《인권》모략소동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있다. 이것을 통해 괴뢰들에게는 북남관계를 파국에서 건져낼 꼬물만 한 의지도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더욱 격화시키고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고의적으로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알수 있다.

이미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킴으로써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최악의 국면에 몰아넣은 남조선보수패당은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주적》론까지 되살리고있으며 우리의 사상과 체제를 전면부정하면서 동족과 끝까지 엇서기 위해 불순한 《인권》모략소동에 갈수록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대결에 미친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극도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괴뢰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절대로 방관시하지 않을것이며 그에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반역패당은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던 선임자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돌이켜보고 어리석은 대결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은정철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 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일제에 의한 《한일합병조약》날조 100년, 조국해방 65돐이 되는 올해에 일본의 과거죄악을 청산하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더우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력사에 전무후무한 가장 야만적이고 추악한 일본의 특대형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받아내려는것은 우리 조선녀성들의 확고한 의지이다.

이로부터 북과 남의 녀성단체들은 4월말 평양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북남녀성토론회를 큰 규모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쳐왔다.

그러나 남조선보수패당은 북남녀성토론회를 처음부터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실무접촉에 참가하는 남측《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들을 《선별불허》하였으며 토론회를 앞두고 《현 남북관계상황》이니 뭐니 하며 남측녀성대표단의 평양방문길을 가로막아나섬으로써 끝끝내 토론회를 진행할수 없게 하였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책동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온 겨레의 강렬한 지향에 대한 전면도전이다.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북남녀성토론회를 가로막은 남조선괴뢰당국의 책동을 일본의 과거죄악을 공공연히 비호두둔하는 친일역적행위로, 민족의 존엄을 모독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원한까지 짓밟아버린 용서 못할 반민족적인 망동으로 락인하면서 전체 조선녀성들의 이름으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일제가 식민지통치시기 840만여명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강제랍치, 련행하여 침략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고 100여만명을 학살하였으며 20만명의 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어 가장 잔악한 정신, 육체적고통과 치욕을 들씌운 국가적범죄는 천추를 두고 잊을수 없는 조선인민의 피맺힌 한이다.

오늘날 일본의 죄악을 총결산하는것은 현 남조선괴뢰당국의 친일사대매국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남조선의 보수세력은 집권이후 지금까지 일본의 과거죄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신협력시대》와 《미래지향》을 떠들며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야욕까지 부추기는 친일매국행위를 일삼아왔다.

현실은 미국과 일본에는 아부굴종하고 동족에게는 대결의 총칼을 내대는 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가도 남조선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지켜낼수 없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해내외 온 겨레는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외면하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는 남조선괴뢰패당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 단합된 힘으로 일본의 과거죄행을 반드시 결산하여야 하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99(2010)년 5월 3일 평양

로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반역《정권》끝장내자

남조선전지역에서 반《정부》투쟁 전개, 각계층 군중 10만여명 참가

【평양 5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5.1절에 즈음하여 1일 남조선전지역에서 각계층 군중 10만여명의 참가하에 반《정부》투쟁이 전개되였다.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5.1절범국민대회》에는 남조선의 민주로총, 《진보련대》를 비롯한 2 000여개 단체 1만 5 000여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발언자들은 5.1절에 즈음한 남북로동자들의 통일행사를 가로막은 당국의 죄행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로조말살을 노린 폭압책동에 미쳐날뛰며 민중의 삶을 무참히 짓밟고있다고 하면서 현 《정부》와 《한나라당》에 《날치기》, 《차별》, 《조폭》이라는 오명을 락인한다고 밝혔다.

민주로조운동을 말살한다고 하여 로동자들과 국민의 저항이 중단될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반역《정권》을 끝장내는것만이 민주화를 실현하고 로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길이라고 하면서 단결된 힘으로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당국을 심판하자고 호소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동족적대정권》, 《민생파탄정권》, 《민주파탄정권》, 《로동탄압정권》이라고 씌여진 간판들을 들부시며 《로동자의 손으로 현 정부 심판하자!》고 웨쳤다.

한편 괴뢰당국은 18개 중대 경찰병력을 대회장주변에 배비하고 폭압분위기를 고취하였다.

이날 민주로총 인천본부 1 500여명도 부평역에서 집회를 가지고 괴뢰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였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당장 중지하라!

스위스단체들의 공동성명

우리 나라 외무성 비망록을 지지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4월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 비망록을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그 상세한 내용을 상기시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누가 먼저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전개하였으며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명백히 미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지대창설의 방법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제안과 발기들을 반대하였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위를 위해 자체의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200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였다.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유일한 핵공백지대로 남아있던 동북아시아지역의 핵불균형상태는 끝장나게 되였다.

자위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새로운 조선전쟁을 막는 억제력으로 되고있다.

책임적인 핵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비핵화의 실현은 신뢰조성을 필요로 하고있다.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올해 1월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하여 또다시 제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와 세계적인 핵군축과정을 계속 지지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공정한 회담을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은 한갖 꿈에 불과할것이다.

정전협정대신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당장 중지하라!

미국은 조선에서 손을 떼라!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들을 철수하라!

본사기자

대량살상무기철폐를 요구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4월 27일 괴뢰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단체는 세계적으로 송이폭탄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을 금지할데 대한 목소리가 높아가고있지만 군당국이 그 무슨 《안보》를 운운하며 이 흐름에 역행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군당국이 이미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신형무기를 해외에서 계속 끌어들이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단체는 올해 《국방예산》에서 송이폭탄구매에 막대한 돈을 책정한 당국의 기도를 까밝혔다.

단체는 또한 남조선에 비축된 미국의 전쟁예비물자들가운데는 방대한 량의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계속 보유하는것이야말로 범죄라고 규탄하였다.

부패한 검찰의 전면해체를 주장

남조선의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련대가 4월 24일 괴뢰검찰의 부정부패행위를 단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얼마전 한 언론에 의해 성매매행위를 후원한 검찰의 죄행이 낱낱이 폭로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한 그 무슨 《진상규명위원회》의 책임자로 범죄행위에 관여한자를 임명하고 진상을 덮어버리려 꾀하고있다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지금까지 민중에게 호령하며 권력의 시녀로 존재해온 검찰의 더러운 본색은 그 무엇으로도 가리울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지금 전체 민중이 이번 사실을 두고 격분을 터치고있다고 하면서 민중을 협박하고 독재권력을 비호하는 썩은 검찰은 마땅히 해체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부당한 민족차별정책의 철회를 요구하여

일본각지에서 투쟁 전개

일본각지의 총련조직들과 동포들, 일본시민단체성원들이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차별조치철회를 요구하여 련대투쟁을 벌리였다.

4월 8일 총련 오사까부본부 일군들, 조선학교 학부모, 학생들과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모임소속 일본시민들이 오사까의 주요역들에서 삐라를 뿌리며 가두선전활동을 벌렸다.

조선학교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일본시민들이 부당한 차별조치철회를 위한 투쟁에 적극 합세해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이날 고베조선고급학교교육회 관계자들과 일본단체인 《대화로 평화를! 일조관계를 생각하는 고베네트워크》 성원들은 일본중의원의원회관과 문부과학성을 찾아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조선학교차별정책철회를 요구하여 일본민주당과 문부과학상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전달하였다.

이에 앞서 2일 총련 가와니시지부, 녀성동맹 효고현본부, 고베조선고급학교 일군들은 일본사민당 당수를 만나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 하루빨리 포함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나라현에서도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조치를 반대하는 집회가 진행되였다.

⁘ ⁘

일본당국의 민족차별정책을 반대하는 재일동포들과 학부모들, 일본인사들의 투쟁이 일본각지에서 전개되였다.

4월 10일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학구 어머니들의 집회가 나고야조선초급학교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학구 어머니회련락회 관계자들과 학부모들, 일본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일본당국이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만을 배제하는것은 명백히 위법행위로서 일본의 일관한 차별정책의 발로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일본당국이 과거죄행에 대한 배상의 견지에서도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4월 16일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의 조선학교배제를 반대하는 긴급행동》 실행위원회 성원들은 지난 3월 27일에 진행된 결의집회에서 채택된 결의문과 서명문을 문부과학성에 전달하고 집회를 가지였다.

후꾸오까조선학원 리사장을 비롯한 조선학교관계자들, 후꾸오까현일조우호협회 부회장과 성원들은 4월 20일 일본수상과 문부과학상에게 보내는 요청서와 2만 5 000여명의 명의로 된 서명문을 일본민주당과 문부과학성에 각각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파쑈당국의 방송장악책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에서 말라리아환자 증가

4월 26일 남조선《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지난해 말라리아환자가 그 전해에 비해 1.3배나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 련천군,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남조선강원도 철원군,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에서 많이 나타났다 한다.

본사기자

민족성을 지켜나가는 길에서

성스러운 사명감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총련은 동포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을 높이고 민족성을 살려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는 총련 제20차 전체대회 결정에 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와 전통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그를 더욱 계승발전시키는것을 사명으로 하여 지난 2004년에 창립된 총련중앙본부직속의 전문력사연구기관이다. 지난 몇해동안 이곳 연구소성원들은 애국위업의 뿌리와 전통을 살리는 성스러운 사업을 책임졌다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애국위업의 년대기들에 새겨진 수많은 력사자료들을 발굴고증 및 정리하였다.

그들이 수집한 1세애국동포들의 생생한 증언과 체험담, 조련과 민전, 총련결성초기의 자료들, 총련의 력대 전체대회들과 중앙위원회 등 중요회의 문헌들과 중앙본부와 지방본부들의 기관지들, 신문, 잡지, 도서, 선전물 등은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화하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연구소에서는 수집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발전로정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키였으며 그 결과를 정기적인 연구토론회에서 발표하였다. 또한 총련의 각급 조직들의 연혁사를 작성하는 사업에도 적지 않은 방조를 주었다.

연구소가 거둔 성과들은 동포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서 이룩된것이였다. 수많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연구소의 사업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도서로서 재일동포들속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김일성장군투쟁사》를 수십년세월 가보로 소중히 간직해오다가 기증한 한 총련일군, 연구소가 문을 여는 첫날에 총련결성직후의 귀중한 력사자료를 가지고 찾아온 한 동포…

연구소성원들이 너무도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는 찾기 어렵다고 여기고있던 자료들을 짧은 기간에 무려 1만 5 000여점이나 수집할수 있은것은 이처럼 동포대중의 적극적인 호응과 열렬한 성원이 있었기때문이다.

그들의 기대와 믿음을 잊지 않고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를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여 애국위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깊이있게 론증할 일념을 안고 연구소성원들은 지금 더욱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실천해나가고있다.

우선 품들여 수집한 귀중한 력사자료들을 잘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분류와 콤퓨터입력사업을 힘있게 추진해나가고있다. 그에 기초하여 5월에 열리게 될 총련 제22차 전체대회와 총련결성 55돐, 조국해방 65돐 등 중요계기들에 자료전시회 등을 크게 연다고 한다. 2012년에는 조국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정을 일지형식으로 정리하는 사업이 완성되게 된다.

숭고한 시대적사명감과 책임감을 안고 애국의 력사를 빛내이고 계승해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에 모든것을 바쳐가는 이곳 연구소성원들을 동포사회는 끝없이 사랑하고 존경하고있다.

기다려지는 사람들

동포사회에서 고유하고 우수한 우리 민족문화예술의 전통을 꽃피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 동포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있는 예술인들가운데는 총련 교또조선가무단 성원들도 있다.

이 가무단은 창립후 지난 45년간 수많은 공연들을 통하여 동포들의 가슴속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그들을 애국운동에로 추동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있는 예술단체이다.

그 빛나는 전통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는 가무단성원들은 지금 동포들의 가슴속에 애국의 넋, 민족의 넋을 심어주기 위한 예술활동을 더욱 다양하고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가무단이 펼쳐놓는 민족적정서가 넘치고 애국의 숨결이 높뛰는 노래와 춤은 동포들과 우리 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특히 1세동포들이 즐겨 불러오는 오랜 민요들을 위주로 한 그들의 노래무대는 고유한 민족의 향취를 풍기며 동포들의 가슴가슴을 고향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설레이게 하고있다. 애국애족의 기상이 넘치고 고유한 우리의 민족성이 흘러넘치는 가무단의 공연은 동포들에게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애국위업의 밝은 앞날에 대한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가무단에서는 군중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도도 잘해나가고있다. 교또지역에는 여러 총련조선초급학교들에 조직된 《아리랑교실》들과 조청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장고소조를 비롯하여 총련조직과 산하단체, 우리 학교들에 20여개의 문화예술소조들이 있다. 그에 대한 예술지도를 전적으로 총련 교또조선가무단이 맡고있는데 소조원들모두가 좋아한다.

소조원들은 한결같이 이 가무단을 《우리 가무단》이라고 정을 담아 친근하게 부르며 그들의 공연과 예술지도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한다.

언제나 자기들을 친손녀, 친딸처럼 위해주고 친누나, 친언니처럼 따르는 각계층 동포들과 학생들의 모습에서 가무단성원들은 끝없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애국의 공연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허영민

조선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천재적위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 제14호가 《조선의 위대한 아들》이라는 제목의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서해갑문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진,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와 조국해방전쟁승리경축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수령님의 사진 등 6상의 영상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4월 15일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20세기의 탁월한 위인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날》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으며 우리 인민모두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이고 제자이며 어버이수령님의 아들딸들입니다. 우리 혁명의 1세대로부터 오늘의 새 세대에 이르는 모든 세대들이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수령님의 손길아래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보람찬 삶을 누려왔습니다. 우리 인민은 일찍부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전설적영웅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받들어 모시였으며 어버이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로 간직하여왔습니다.》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진정 김일성동지는 조선의 위대한 아들, 위대한 수령이시였다고, 하기에 조선인민은 자기 민족을 《김일성민족》으로, 사회주의조선을 《김일성조선》으로 긍지높이 부르고있다고 썼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이께서는 일찌기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였으며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카륜에서 첫 당조직을 무으시여 조선로동당건설의 시초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무으시고 인민대중을 력사의 중심, 사회와 자연개조의 중심에 내세운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자신의 천재적인 조직적수완과 불타는 혁명적열정으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을 포함한 모든 애국자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 대오에 묶어세우시였다.

주체사상의 힘으로 뭉치고 천재적인 장군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았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강점자들과의 싸움에서 적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써 타승하고 승리와 영광을 떨칠수 있었으며 해방된 조국땅에 새로운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울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승리를 이룩하여오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청산리정신》이 창조되였고 강선땅에서 유명한 대중적혁신운동인 《천리마운동》이 창조되여 온 나라에 그 불길이 타번지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진정으로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인민대중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일하고 투쟁하는 이 사업방법은 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1990년대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자체의 힘으로 산간지대의 강하천들에 중소형발전소들을 일떠세워 전력문제를 풀고 식량문제를 해결한 자강도사람들의 투쟁정신은 《강계정신》으로 온 나라에 일반화되였으며 조선은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솟구쳐오를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수 있었다. 바로 그 어려운 나날에 공화국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승리적으로 이겨내고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만들어 우주에 쏘아올렸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21세기 강성대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선군정치가 있어 조선인민군은 사상정신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완벽한 무적의 강군으로 준비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도 기적의 창조자로 되고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다.

신문은 끝으로 천재적인 위인이신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강조하였다.

모스크바발 본사특파기자

사회주의위업의 믿음직한 수호자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고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 4월 22일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환호하는 열병대오에 답례를 보내시는 사진을 모시고 《조선인민군창건 78돐에 즈음하여》라는 표제밑에 특집하였다.

신문은 《령장과 강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인민군은 김정일최고사령관의 현명한 령도밑에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전체 장병들이 최고사령관과 운명을 같이하는 조선인민군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최고사령관과 군인들의 관계가 사상과 뜻, 정을 같이하는 혁명동지의 관계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신문은 《사회주의위업의 기둥 조선인민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위업의 믿음직한 수호자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사회주의제도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나가려는 철석같은 의지, 시련을 맞받아나아갈 때 사회주의승리가 있다는 락관, 이것이 오늘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정신력이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으며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선도자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혁명적군인문화가 사회전반에 흘러들고 그것을 전체 인민이 따라배우고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세련된 령도밑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사회의 선도자로 되고있는 조선인민군이 있어 조선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라오스신문 《비엔티안 마이》 4월 26일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조선인민군》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준비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심으로써 우리 혁명무력이 그 어느 나라 군대도 따를수 없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준비된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조선인민군의 군사기술적위력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대를 현대전의 요구와 나라의 지리적특성에 맞게 독특한 전략과 전술로 무장시키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다.

관병일치, 군민일치는 조선인민군의 고유한 특성이며 전통적미풍이다.

창건된 첫날부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온 조선인민군의 전통은 김정일국방위원장에 의하여 오늘 최상의 경지에 오르게 되였다.

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인디아신문 《싸마챠르 포스트》 4월 24일부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의 위력을 격찬하는 글을 실었다.

본사기자

어리석은 술책

요즘 미국이 우리 나라와 이란의 《미싸일위협》에 대하여 더욱 요란하게 떠들어대고있다.

미국방성과 현지군사령관들, 정보기구들은 저마끔 우리 나라와 이란의 《미싸일위협》을 날조한 보고서들을 백악관과 국회에 보내고있다. 국회는 국회대로 그와 관련한 상하량원분과위원회 청문회들을 련이어 열고 소란을 피우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미국회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가한 미국방성 정책담당 차관보라는자는 우리 나라와 이란의 《미싸일위협이 증대되고있다.》느니, 두 나라가 《장거리탄도미싸일을 개발하기 위해 애쓰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국회상원 의원들도 그 무슨 《우려를 표시》한다, 《대처방안》을 《료해》한다 어쩐다 하며 그에 맞장구를 쳤다.

어떻게 해서나 국제사회에 우리 나라와 이란의 허구적인 《미싸일위협》을 기정사실화하여 불순한 목적에 리용하려는 모략적인 술책이다.

세계에 미싸일을 개발하는 나라는 적지 않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나라와 이란의 자위적인 미싸일개발만을 터무니없이 《위협》으로 몰아붙이며 물고늘어지고있다. 일종의 피해망상증이고 음흉한 계략이라고 할수 있다.

력사적으로 미국이 우리 나라나 이란을 위협하고 피해를 주면 주었지 반대로 두 나라가 미국을 위협하고 피해를 준적은 한번도 없다. 지금도 같다. 미국은 조선반도남쪽과 그 주변지역 그리고 중동지역에 방대한 병력과 대량살륙무기들을 전개해놓고 우리 나라와 이란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이러한 사실만 놓고보아도 미국이 떠들어대는 이른바 《위협》타령이 거꾸로 된 랑설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남에게 피해를 준자는 보복을 당할것 같아 언제나 발편잠을 못 자는 법이다. 미국이 그와 같은 심리상태에 있다.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은 미국에 항시적으로 잠재해있는 피해망상증과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 과대망상증의 산물이다. 다른 나라들의 보복을 피하고 그 나라들을 마음놓고 타격하자니 미국에 미싸일방위체계가 필요한것이다.

그러자면 이 체계수립을 위한 구실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세계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회의심을 품고 반대해나서고있다. 동맹국들속에서도 자금만 탕진하고 성과는 별로 없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계획을 뜨뜨미지근하게 대하고있다. 지금 미국은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위한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하고있는 일본이 이 분야에 쏟아부을 자금을 줄일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를 듣고 몹시 불안해하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우리 나라와 이란의 날조된 《미싸일위협》에 대해 세계에 대고 더욱 요란스럽게 광고하고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의 광란적인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을 합리화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런 방법으로 국민들로부터 《방위》의 명목밑에 더 많은 세금을 긁어모으고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려는 범죄적책동에 동맹국들을 바싹 끌어들여 재정적부담을 걸머지우려 하고있다.

미국이 그 무슨 《미싸일위협》을 걸고 침략적인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을 정당화하고 우리의 자위적억제력강화를 가로막으려는것은 어리석은짓이며 완전한 오산이다.

미국이 시비하거나 복잡하게 논다고 하여 할 일을 못할 우리가 아니다.

미국의 시비중상, 각종 모략책동이 우심해질수록 우리는 자위적억제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찾은지 오래다. 우리는 적들의 침략과 군사적공갈책동이 계속 강행되는 상황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자주권수호의 근본담보이며 필승의 보검인 자위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것이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은 현시기 군비경쟁의 주범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군비경쟁을 통해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절대적인 군사적우위를 차지하여 지배주의목적을 실현하려는것은 미국의 파렴치한 야심이며 행동기준이다.

하지만 그런 수법이 오늘의 세계에서 통할리 만무하다.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을 턱대고 모략적인 미싸일방위체계수립계획을 강행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절대로 정당화될수 없다. 그러한 행위는 백해무익하며 따라서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른바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어리석은 술책을 걷어치우는것이 좋을것이다.

리경수

우리 나라 외무성 비망록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조선반도와 핵》이 4월 28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 S/2010/205호로 배포되였다.

중국에서 5.1절기념행사 진행

중국에서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을 기념하였다.

1일 베이징의 천안문광장에서는 수만명의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국기게양식이 진행되였다.

이날 천진, 중경시와 티베트자치구 라싸, 내몽골자치구 후허하오터시 등 여러 도시들에서는 체육경기와 민속놀이, 예술공연, 전람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4월 27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는 전국로력혁신자 및 선진일군표창대회가 있었다.

호금도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당과 국가지도간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전국로력혁신자 및 선진일군들에게 영예칭호증서가 수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유럽에서 화산분출피해

지난 4월 14일 이슬란드 남부의 빙하밑에서 화산이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하여 얼음이 녹고 연기와 증기, 화산재가 수천m의 상공에까지 솟구쳐올랐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이슬란드의 남부에서 화산이 분출하였다. 그러나 그 규모는 이번것보다 작았다. 이번 화산분출로 이슬란드에서는 주요도로가 폐쇄되고 큰물이 나 수백명이 소개되였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내뿜는 검은색의 방대한 화산재는 강한 바람을 타고 유럽의 대부분지역으로 확대되였으며 지어 아시아지역 상공으로까지 이동하였다.

화산분출은 사람들의 건강은 물론 정치, 경제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다. 이번 화산분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것은 유럽의 항공업계이다. 거대한 화산재구름이 이 지역의 상공을 뒤덮어 비행기운행에 혼란을 주었다. 돌과 유리성분, 모래 등을 포함하고있는 화산재구름이 비행기발동기에 들어가면 사고를 일으킬수 있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비행기운행을 중지시키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지난 4월 17일에 비행을 금지한 나라는 10여개에 달하였다. 일부 나라들은 비행기운행을 전면금지하였다. 유럽항공업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일을 두고 유럽서북부에서 최악의 사태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다.

지금까지 유럽항공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9.11사건》이였다. 당시 미국은 사흘동안 령공을 폐쇄하였었다.

한 외신은 이슬란드에서의 화산분출로 인하여 항공회사들이 입은 손실액이 30억US$이상에 달한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비행금지조치로 영향을 받은 승객은 매일 평균 120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관광부문의 손실도 적지 않다. 미국 뉴욕시의 관광관련손실액만도 최고 2억 5 000만US$에 이를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이번 화산분출은 가뜩이나 금융위기의 후과로 인하여 비틀거리는 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있다.

최근 유럽나라들이 4월 중순부터 실시하였던 비행금지조치를 해제하였지만 이번 사태로 빚어진 후과는 계속 나타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본사기자 전영희

사회주의를 지향해나가는 알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는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리념이며 혁명적기치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날로 강화되고있다.

지난 4월 19일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9차 알바성원국 수뇌자회의에서는 알바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주의길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대해 일치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곧 알바가 미제를 비롯한 외세의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지적하고 자주적이고 발전된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마련하는데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려는 알바성원국들의 립장을 공식 천명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알바는 미국의 지배주의적인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프타) 창설기도에 맞서 라틴아메리카의 통합과 발전을 이룩할 목적밑에 2004년 12월 꾸바와 베네수엘라의 발기에 따라 창설된이래 끊임없이 확대되여온 협조기구이다.

이번에 알바성원국들은 사회주의를 공동의 투쟁리념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내세움으로써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라틴아메리카의 자주화를 실현할 드팀없는 의지를 세계에 과시하였다.

회의에서 연설한 라울 까스뜨로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은 알바가 인민들을 사회적질곡에서 해방하고 금융, 무역 등 여러 분야의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달성한 성과에 대해 언급하고 앞으로 성원국들이 사회주의기치밑에 더욱 단결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챠베스 프리아스는 알바가 가는 길은 곧 지역의 진정한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길이라고 하면서 성원국들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끊임없는 위협책동을 물리치고 알바의 리념과 계획들을 철저히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티구아 바부다수상 발드윈 스펜써는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알바의 리념은 앞으로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의 현실적인 미래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적들의 압력책동과 악랄한 선전깜빠니야를 박차고 알바를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니까라과대통령 다니엘 오르떼가 싸베드라와 쎈트빈쎈트 그레너딘즈수상 랄프 곤쌀베스는 알바의 협조와 통합이 잘되여나갈수록 미제는 알바를 없애버리려고 갖은 음모를 꾸미고있다고 단죄하고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 립장을 밝혔다.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라틴아메리카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알바성원국들은 반드시 보다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청년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해 강조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4월 29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청년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오만한 렬강들이 집요한 모략선전으로 이란을 와해시키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그 어떤 효력도 나타내지 못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란은 적들의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우주과학기술분야에서 현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 자기 나라가 청년들의 열정과 재능에 떠받들려 더욱 발전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지역나라들사이의 협조강화를 호소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가 4월 29일 한 외교석상에서 지역나라들사이의 경제적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중동지역에서 안전과 안정,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경제협조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협조기구에는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망라되여야 한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국제금융기구들의 개혁을 주장

케니아부수상이 4월 28일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을 개혁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 기구들에서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아프리카나라들을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의견과 요구가 묵살되고있다고 까밝혔다.

그는 발전도상나라들이 국제금융기구들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현재의 국제금융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시아나라들 협조

레바논과 까타르가 4월 28일 경제분야에서 쌍무협조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13건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중국과 따쥐끼스딴은 두 나라사이의 국경선확정에 관한 조약에 조인하였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꾸바에서

꾸바정부가 최근 나라의 원유정제능력을 늘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마딴사스시에 하루 정제능력이 15만bbl에 달하는 새로운 원유정제공장이 건설되게 된다.

또한 현재 있는 2개의 원유정제공장들의 능력을 각기 2배이상 확장하게 된다.

계획이 실현되면 나라의 하루 원유정제능력은 35만bbl로 높아지게 된다.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올해 3월에 제조업부문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3% 증대되였다.

4월 26일 이 나라 경제발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시에라레온에서

시에라레온에서 4월 27일 일부 녀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치료제실시를 선포하였다.

그에 따라 나라의 모든 임산부들과 5살미만 어린이들이 국립보건기관들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게 되였다.

이 나라 대통령 어니스트 바이 코로마는 이에 대해 밝히면서 정부가 보건사업발전에 보다 큰 관심을 돌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잠비끄에서

모잠비끄수상 아이레스 알리가 4월 28일 국회에서 2010년 경제발전목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올해에 경제를 6.2% 장성시킬것을 계획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농업과 채취공업, 전력공업부문에 힘을 집중하는것과 함께 인플레률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계속 녹아나는 미군

이라크에서 미강점군이 이 나라 항쟁세력의 군사작전에 의해 계속 녹아나고있다.

4월 27일 디얄라주에서 항쟁세력의 폭탄공격으로 미군 1명이 또 황천객이 되였다.

이로써 이라크전쟁개시이래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죽은 미군수는 4 390여명에 달하였다 한다.

인명피해

나이제리아에서 말라리아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있다.

특히 어린이들속에서 이 병에 의해 해마다 약 3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있다 한다.

정부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령토강탈책동을 단죄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상이 4월 26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의 령토강탈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당국이 동부꾸드스를 팔레스티나령토에서 떼내기 위해 이 지역에서 유태인 《정착촌》건설을 중지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평화회담에서 꾸드스의 지위문제를 배제하려 하고있다고 폭로규탄하고 이것은 국제법에 위반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인민적경제정책을 반대하는 프랑스근로자들

해적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소말리아해역에서 해적행위가 계속 성행하고있어 국제적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4월에 소말리아해적들이 뛰르끼예선박과 타이화물선 3척 등을 랍치하였다.

지난 3월에는 소말리아해적들이 에스빠냐어선과 24명의 선원이 탄 아랍추장국련방 소유의 화물선을 랍치하였다. 이보다 앞서 소말리아해적들은 케니아어선도 랍치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소말리아해적들의 해적행위가 더욱 우심해지고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올해 1월 1일 싱가포르선적의 화학물질운반선이 아덴만에서 해적들에게 랍치된데 이어 같은 달 27일 소말리아의 베르베라항앞바다에서 캄보쟈화물선이 또 랍치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유조선도 해적들에게 랍치되였다.

지난 3월이래 소말리아해적들에게 랍치된 선박은 20척이나 된다고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 소말리아앞바다에서 해적들의 선박랍치행위가 성행하고있어 이 해역에서의 선박들의 항행이 커다란 지장을 받고있다.

하다면 소말리아해역에서 해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더욱 증대되고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선 소말리아해적들이 흔히 선박들을 랍치하고는 선주나 당사국으로부터 거액의 《몸값》을 받아내는데서 재미를 보고있는데 있다. 얼마전 소말리아해적들은 랍치한 싱가포르의 짐함수송선을 놓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몸값》을 받아냈다. 이보다 앞서 소말리아해적들은 근 3개월동안 억류하였던 뛰르끼예선박과 선원들을 숱한 돈을 받아내고서야 놓아주었다.

소말리아앞바다에서 해적행위가 성행하고있는것은 또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해적들의 장비가 현대화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고 한다. 해적들은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갖추고 전술적이며 교묘한 방법에 의거하여 선박들을 랍치하고있다. 소말리아해역은 길이가 길고 폭이 매우 넓다. 이로 하여 소말리아해역에 대한 순찰과 안전보장이 어려울뿐아니라 해적들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법이 모호한 문제도 있다. 이로부터 소말리아해역에서 해적행위를 막는데서 여러가지 난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현재 소말리아에는 공식정부라고 할만 한 권력기관이 없다. 이것은 소말리아앞바다에서 해적행위의 성행을 막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소말리아는 1991년이래 내전이 지속되여 무정부상태에 있다. 현재 이 나라에는 잠정정부가 있지만 극심한 혼란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여오고있다. 이로 인해 소말리아는 해적소탕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으며 강한 조치를 취할 형편이 못된다.

소말리아해역에서 해적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그를 막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있다.

지난 1월 1일 0시부터 중국해군 항해보호편대가 아덴만과 소말리아해역의 항해보호선을 본래보다 동쪽으로 수십n·mile정도 더 연장하였다. 중국해군이 이 해역에서의 항해보호선을 더 연장한것은 소말리아해적들의 해적행위가 날로 성행하고 항해보호형세가 더욱 엄혹해지는것과 관련된다고 중국의 한 전문가는 말하였다.

유럽동맹은 2008년에 소말리아해역에서 해적행위를 막기 위해 군함들을 파견하였다. 군함승조원들은 선박들을 추적하는 해적들을 소멸하기 위해 사격을 가할 권한도 가지고있다고 한다.

지난 3월 프랑스해군이 소말리아앞바다에서 35명의 해적을 체포하였다. 프랑스의 한 관계자는 4차례의 작전에서 해적들의 4척의 모선과 6척의 소형뽀트를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얼마전 해적선 1척을 격침시키고 6명의 해적들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뛰르끼예국회 의장은 소말리아가 해적과의 싸움에 보다 진지하게 달라붙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에스빠냐수상은 《유엔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응이 적절한 방도이다.》라고 하면서 국제적인 반해적노력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분석가들은 해적행위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방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소말리아에서 오래동안 지속되고있는 혼란과 당국이 나라를 통제하지 못하고있는 상황, 심각한 사회경제실태가 소말리아해적들의 해적행위가 성행하게 하는 근원이다, 해적들의 범죄에 대한 국제법과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여론들은 소말리아해역에서의 해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노력이 강화되고있는 기회를 타고 자기의 리기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해적《소탕》의 간판밑에 벌어질수 있는 일부 세력들의 불순한 행동에 경각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전하고있다. 여기에서 일부 세력들이란 미국과 일본과 같이 《해적행위방지》의 미명하에 딴 속심을 추구하는 나라들을 념두에 두고있다.

사실들은 소말리아해역에서 성행하는 해적행위가 국제사회의 우환거리로 되고있으며 이에 따라 그를 막기 위한 국제적노력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채일출

ㄱ-01075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집위원회